

5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49.40 (-24.87)	866.37 (-6.60)
금리 (연-0.01%)	환율 (원-달러)
3.349 (-0.011)	1334.50 (+3.20)

의료계 집단행동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화
02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경신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실시간 거래가격이 송출되고 있다. 비트코인 판매가격은 이날 오전 10시 55분 기준 최고가 9686만원을 터쳤다. /뉴시스

“국가장학금 150만명 혜택 근로장학금도 20만명까지”

尹대통령, 열일곱번째 민생토론회
교육·근로·주거장학금 3종 패키지
“청년 역량 발휘 돕는게 국가 책무”



윤석열대통령(사진)이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국가장학금제도 확대 등 청년 정책을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따라서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려갈 수 있다”며 국가장학금제도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주거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지원, 청년 양육자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체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며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현재 12만명에서 내년도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신 형성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뛰어난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며 “저는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社告

- 4·10 제22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메트로경제신문>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총선 특별취재팀을 운영합니다. 투표일까지 메트로경제신문 특별취재팀 기자들은 전국 총선현장을 돌며 생생한 선거 현장과 각 정당의 정책들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입니다.
- ◆제22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낙동강 벨트 및 전국의 생생한 선거 현장을 인턴취, 취재·보도합니다.
- ◆각 정당 유세·홍보 기초 분석 비교

- 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한 정당의 선거 기초를 전달합니다.
- ◆챗GPT 활용한 22대 총선 정당 공약 분야별 검증
 - 각 정당의 공동공약을 비롯해 공약 평가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 ◆매주 1회 여론조사 및 평론가 분석
 - 격전지 중심으로 여론조사의 분석과 박상병 시사평론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등 평론가들의 해설을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습니다.

논란 임원 앓히고 상생도 제자리

여론만 잠재운 카카오의 ‘쇄신’

신임 CTO에 정규돈 前카뱅 CTO
카뱅 먹튀 논란에도 임원 내세워
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 檢 고발
택시업계와 상생합의안 갈등도



카카오가 대규모 인적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을 빚은 인물을 새 임원으로 내세운 데 이어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종 내용에 휩싸이며 쇄신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 차익을 챙기면서 ‘먹튀’ 논란을 일으킨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카카오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내정했기 때문. 여기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금감원으로 부터 분식회계 혐의를 받은 데 이어 택시업계와 상생합의안을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내정자)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최근 임직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온오프라인 간담회에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카카오의 차기 카카오CTO로 소개했다.

재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카카오의 서비스 및 기술을 이해하고 제1금융권의 기술안정성 수준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리더를 내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돈 전 CTO 내정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가 기술경쟁력을

다만 이 같은 결정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정 CTO 내정자는 과거 스톡옵션 관련 70억원 차익을 얻으면 ‘먹튀논란’이 있었던 임원이기 때문.

정당한 지 3거래일 만인 2021년 8월10일 보유주식 11만7234주 가운데 10만6000주(주당 6만2336원)를 매도해 약 6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그는 2주 뒤 나머지 주식 1만1234주(주당 9만1636원)도 전량 매도해 10억여원을 얻었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의 내부 상황도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감리를 받고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택시업계와 상생합의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치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금감원은 조치안을 감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회사에 통지서를 보낸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이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생산가능인구 비중 33년 만에 70% 하회

15~64세 인구 비중 69.9%
고령화에 출산율 하락 등 영향

지난달 국내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33년 만에 처음으로 7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란 15~64세의 나이에 속해 정상적인 노동 참여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의 감소는 나라 성장률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다. 이들이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1년~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은 지난 1991년 69.7%를 기록한 뒤 1992년(70.0%)에 역대 처음으로 70% 선을 넘겼다. 그 이후 2010년대 들어 73%대까지 늘어난 바 있다.

이 비중은 2011년 10월~2012년 1월 기간에 73.4%까지 치솟았으나 증가세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2월에 73.2%로 주춤한 뒤 2019년 2월에는 72.4%까지 축소됐다. 이후 2020년 2월(71.9%), 2021년 2월(71.3%), 2022년 2월(70.9%), 2023년 2월(70.4%) 등으로 매해 0.4~0.5%p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15~64세 인구 비중은 69.9%로, 전월(70.0%) 대비 0.1%포인트(p) 내려갔다. 전년동월(70.4%)에 비해서는 0.5%p 낮아졌다.

이 같은 비중 하락 추세는 지난 2019년 12월 시작된 총 인구 감소를 비롯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합계출산율 하락 등이 한데 맞물려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70% 선을 밑돈 것은 지난 1991년 이래 처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합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이들 연령대 비중

행안부에 따르면 15년 전인 2009년 2월 기준 전체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510만 명)에 그쳤

다. 그로부터 5년 후인 2014년 2월 630만 명(2009년 대비 +120만 명)까지 증가했고 비중도 12.3%까지 늘었다.

다시 5년이 지난 2019년 2월에는 노인인구가 771만 명(14.9%)에 달했다. 2024년 2월 기준 노인인구와 비중은 981만 명, 19.1%로 각각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령층은 불과 15년 만에 470만 명 넘게 증가한 데다 비율도 9%p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 15년간 총 인구는 172만 명 느는 데 그쳤다. 총 인구는 2009년 2월(4957만 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11월(5185만 명)에 정점을 찍고 올해 2월 5130만 명까지 감소했다.

OECD의 2022년 집계 기준, 38개 회원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평균치는 64.8%였다. 당시 71.0%(1위)였던 우리나라는 해를 거듭할수록 순위가 내려앉을 전망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국민의힘, 박성중·안병길 컷오프... 김영주·박민식 공천
- ▲ 윤재옥 “김혜경 보좌 권한업 공천, ‘위인설천’... 합리성 없어” /사진 뉴시스

- ▲ ‘공천배제’ 기동민, “무죄 증명해 성복으로 돌아오겠다”
- ▲ 국민통합위,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 양극화 해소”



- ▲ 홍익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수사 방해·외압... 매우 파렴치” /사진 뉴시스
- ▲ 김용태 “고양정 집값 화끈하게 올릴 것”... ‘공천 취소’ 김현아, 선대위원장 맡기로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 교수들도 삭발, 사직서 던져

미북귀 전공의 3개월 면허정지

중대본,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3년 이하 징역, 면허취소 될수도

정부 ‘본보기’ 처분, 되레 반발 사
“같이 일하던 동료, 돌아올 길 요원
병원에 남아있을 이유 없어 사직”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
직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
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했다.
미북귀가 확인된 전공의 70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
고, 이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절차를 밟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강한 대치를 하
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던 교수들이 집단행동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공백 우려는 더욱
커졌다.

◆3개월 집단 면허정지 시작되나

이한경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
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
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수
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사직 후 병원
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전달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점검한 결



5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 실습실이 텅 비어있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 26일 기준 예과 2학년~본과4학년 재적 학생 503명 중 95.23%인 479명이 휴학계를 제출했으며 이번 주까지 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
지를 이탈했다. 사직서 제출자는 총
9981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
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금일
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
정”이라며 “주동 세력 중심으로 경찰 고
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
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
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
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
을 예정이다. 이 외에도 3년 이하의 징

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
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
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
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
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
지 처분을 3년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
된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
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의사면

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울 전망이다.

◆“협박 과도하다” 교수들도 반발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
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본보기’ 처분을 통해 전공의
들의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되레 의
사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히 전공의 빈자리를 메워온 전임의들
과 교수들까지 점차 단체행동에 동참하
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배대환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
는 5일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 선
생님들의 면허를 정지한다고 하는 보
건복지부의 발표와 현재 정원의 5.1배
를 적어낸 모교 총장의 의견을 듣자니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다시 돌아올 길
이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들
과 같이 일할 수 없다면 중증 고난도치
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더 남아 있
을 이유는 없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
혔다.

강원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모교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에 반발해
삭발을 감행했다. 강원대는 전날 교육
부에 49명인 정원을 140명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냈다.

류세민 강원대 의과대학 학장과 유운
중 의학과장 등 교수들은 이날 오전 강

원대 의과대학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의대 증원 신청에 대해 교수들이 77%
가량 유보해야 된다고 결의해 총장에게
전달했지만 의대교수들의 뜻과 전혀 무
관하게 교육부에 증원 신청을 했다”면
서 “젊은 전공의나 후학계를 낸 학생들
에게 면목이 없다”고 토로했다.

윤우성 경북의대 이식혈관외과 교수
는 지난 4일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며 “외과 전공의들이 낙담하고 포
기하고 있고, 우는 아이한테 뺨 때리는
격으로 정부는 협박만 하고 있다”며 지
금 의료문제에 대해 이성적이고 논리적
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고, 정부는 여론
몰이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결과와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
적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 대체인
력 확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
원을 통해 병원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
다. 복지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가
동 중이며 응급실 일반 병상과 중환자
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
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임의와 교수들을 향
해 “비상진료체계는 전공의들이 상당수
빠져있는 상태를 전제로 짜여져 있다”
며 “전임의는 재계약률이 많이 올라와
있고 교수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
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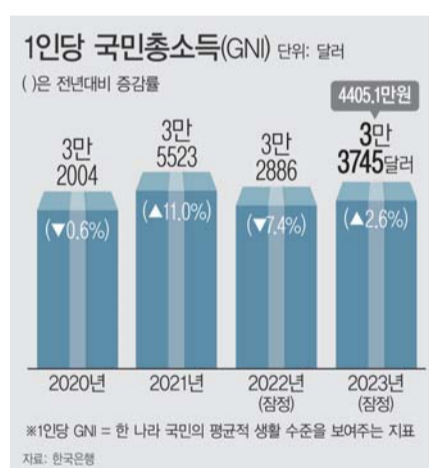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2.6% 증가

한은, 작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
원화기준 4405만1000원, 3.7% ↑
실질 국내총생산 전년비 1.4% 성장

2022년 원화까지 하락으로 7% 이상
줄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G
NI)이 지난해 3만 3745달러까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국내총생산
(GDP)도 같은기간 1.4% 성장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분
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3745달러로 2022년(3만2886달러)대비
2.6%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
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3.7% 늘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
인 소득을 총인구로 나눈 수치로, 국민
의 호주머니 사정을 파악하는 대표적



인 지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원화 기준 2236
조3000억원, 달러 기준 1조7131억달러
로 전년보다 각 3.4%, 2.4% 성장했다”
며 “2022년과 비교해 원·달러 환율이 안
정되며 1인당 국민총소득이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

1인당 GNI는 2017년(3만1734달러)
처음 3만달러에 들어섰다. 2018년 3만
3564달러까지 증가한 이후 2019년(3만
2204달러), 2020년(3만2004달러) 2년
연속 뒷걸음치다 2021년 코로나19 충격
에서 회복되며 3만5357달러로 큰폭 올
랐다. 이후 2022년 원화까지 하락으로
7.4% 감소했지만 또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년 대비 1.4%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4분기 성장률도 전기 대비 0.6% 성장해
속보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성장률은 건설투자가(-4.
5%)가 속보치보다 0.3%포인트(p) 낮
아진 반면 수출(3.5%), 수입(1.4%), 설
비투자(3.3%)는 각각 0.9%p, 0.4%p,
0.3%p 높아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상생안 조치 없어

>> 1면 ‘여론만 잠재운 카카오’서 계속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상생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
행하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가맹 택시
에 호출을 몰아주는 ‘콜 몰아주기’ 문제
로 규제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
는 등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자 주요 택

시단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하지
만 택시조합은 해당 상생안이 논의된
지 두달 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
택시노동 등 4개 택시단체는 지난 4일
“상생합의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속
한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한다”는 내용
의 성명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편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상반기 중 이행하기로 한 것
에 대한 계획은 변동 없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
과신뢰위원회’가 내부 논란에 대한 문
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카카오 준신위
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스톡옵션 논란’
CTO 내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으
로 알려졌다. 이에 전 CTO 내정에 대해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에서 대응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전국 40개 의대서 3401명 증원신청

비수도권 의대 27곳서 73% 차지
서울서 365명, 경기·인천 565명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예상을 뛰어
넘어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목표
치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최대치도 넘어섰다. 이중 지방 의대 27
개교가 73%를 차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
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의대 정
원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의대 보유 대
학 40개교 모두가 모두 3401명의 증원
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인
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
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게 재확인
된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증원 신
청 예상 수요조사에서는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나온바 있다.

전체 증원 신청 규모 중 비수도권 27
개 의대에서 신청한 증원 인원은 2471
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수도권 13
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
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
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의료 및 필수 의
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
다. 총신청 규모는 정부 계획보다 크게
상회했지만,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정
부가 더 늘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조
정관은 “총증원 범위인 2000명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
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 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뉴스

'뉴:홈' 6만1000호 공급... 도약계좌 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

청년정책 살펴보니

이달 중 청약제도 등 대규모 개편 학비·교통비 등 실질적 혜택 강화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일 경기 광명에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발표한 청년정책은 ▲공공분양·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주거 부담 완화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한 취업 지원 ▲학비·교통비 지원을 늘리는 등 생활비 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 특별공급 등의 형태로 청년층에게 '뉴:홈'을 6만1000호 공급한다.

'뉴:홈'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눔·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 모기지 형태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기해 새로 단장했다. 뉴:홈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고 싼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40년 동안 모기지로 나눠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우수 입지를 선정해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1000호도 올해 추가로 공급한다. 역세권, 도심 등에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1000호 공급하기

청년정책 추진계획

빈틈없는 취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준비 선제 지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기회 확대 2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지원 3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 공적 채용 기반 마련, 일·생활 균형 지원
체계적인 자산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 2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경제·금융 교육 확대 3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창업 지원 정책 연계
청년생활 걱정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 부담 완화: 청년 공공분양·임대 공급,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2 생활비 부담 완화: 장학금 확대, 교통비·문화비·여가비 지원 3 청년 건강·안전 지원: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 청년 해외 안전 강화 4 청년 결혼·출산 부담 경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결혼 메리트 확대
청년정책 기반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 위원회, 청년보좌역 등 참여 확대·내실화 2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 중앙·거점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통합 플랫폼

자료/국무조정실

위해 추가 공모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생아 1명당 금리를 0.2%p씩 우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요건과 중도해지요건도 개선한다.

가입이 가능한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늘린다. 또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뒤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의 60% 수준을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한다. 혼인이나 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이 없어 육아후직급여(수당)를 받고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진로·역량개발→취업→재직' 취업 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도 대폭 늘린다.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생 15만명 등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장병들을 위한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도 지난해 8곳에서 올해는 11곳으로 늘려 병역(사회복무요원도 포함)과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민간 4만8000명 ▲공공기관 2만2000명 ▲중앙부처 5000명 ▲해외 5700명 ▲분야별 특화(2만5000명) 부문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493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는 1인당 연 3회까지 50% 지원한다.

제조업 등에 취업하는 청년 2만5000명에게는 최대 200만원(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 100만원)의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엔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최대 1200만원(청년 1인당 월 60만원×12개월+2년 근속시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2100명 수준이었던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구과제인 'K-Move 스킴' 참여 청년을 올해엔 3100명까지 늘려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돕는다.

생활비 등 청년들의 일상적인 비용 부담도 줄인다.

대학생 학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올해엔 1~3구간 50만원, 4~6

구간 30만원씩 단가를 인상한다. 근로장학금도 지원인원을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14만명까지 늘리고, 근로장학생 지원단가(교내 9860원, 교외 1만2220원)도 오른다.

타지역 청년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거주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청년에게는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돌려주는 전국 'K-패스'를 도입한다.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문화생활도 돕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맞벌이 부부가 청약이나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월소득 140→200%) ▲결혼전 배우자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부부 모두 당첨시, 선택주는 유효처리→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점수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마감

3월

15일

근로자 10명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및 납부마감

4월

1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고, 보험료 납부도 즉시 가능합니다.

2024년 전자신고 경품행사

행사기간 보수총액신고: 24.2.1. (목)-24.3.15. (금) | 보험료신고: 24.2.1. (목)-24.4.1. (월)

경 품 커피 기프트콘(1200명)

문 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정치1번지’ 종로, 민심 선택은… 최재형·곽상언·금태섭 3파전

22대 총선 격전지

인구 1만명 이상 洞 표심 얻어야
0~17세 층 얇아 고령화 된 지역
최재형 재선노려, 곽상언 단수공천
금태섭 2030 이탈 이끌면 승산

제 22대 총선에서 ‘정치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 민심의 선택은 어느 후보로 향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종로는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있고,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한 3명(윤보선·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다. 종로구는 3번의 총선(19~21대)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택받았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다.

◆국민의힘 ‘최재형’ VS 민주당 ‘곽상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20대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서울 종로구는 2022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의 불출마 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무난하게 당선됐다. 판사이자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출신인 최 의원은 20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합류했고 ‘깨끗한 공직자’로 인정받으며 재선을 노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 지도부 체제에서 최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개선과 쇄신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곽상언 변호사를 종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 건강한 자연출산과 행복한 양육문화 만들기’ 토론회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로에 단수공천했다. 흔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항상 그의 이름 앞에 붙는다. 이 때문에 언론과 정치권에 이름을 많이 오르내렸다. 주택용 전기 누진제에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한국전력을 상대로 부당이의 반환소송을 벌였다. 다만, 대법원은 ‘누진 요금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곽 변호사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남 보은군옥천군 영동군괴산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박덕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에 낙선한 바 있다.

◆인구 1만명 이상 ‘동(洞)’을 잡아라

종로구는 2024년 2월 기준 인구 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시장을 찾아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곽상언 변호사의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뉴시스

14만에 조금 못 미치는 인구가 작은 자치구다. 그러다 보니 동별 인구가 1만명이 넘는 곳의 표심을 잡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로구에서 인구 1만명이 넘는 동은 청운효자동, 평창동, 혜화동, 창신 1~3동, 송인 1~2동이다. 이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평창동은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고 혜화동은 보수세와 진보세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청운효자동, 창신 1~3동 송인동 1~3동은 진보세가 더 높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약 20%포인트 차로

이긴 21대 총선에서도 평창동은 황 전 대표에게 더 많은 표를 던졌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역시 약 20%포인트 차로 이긴 8회 지방선거에서 송 전 대표는 비교적 강세 지역인 창신동, 송인동, 청운효자동에서도 패배하면서 선거를 내줬다.

10여년 간 종로구에서 선거 담당 업무를 했다는 관계자는 “종로구는 인구가 많이 줄면서 0세부터 17세까지 비유권자의 층이 얇다. 상대적으로 고령화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금태섭’도 주목

최재형 의원과 곽상언 변호사 외에도



개혁신당 금태섭(가운데) 최고위원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태섭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대정치를 내세우는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의 존재도 종로 선거판을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 출신의 이준석 대표가 이끌지만, 금태섭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서 당선된 바 있다. 금 후보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탈당했고 이후 21대 국회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이번에 개혁신당 후보로 종로에 도전한다. 세대정치를 표방하는 개혁신당이 지역의 2030 지지층의 이탈을 이끌어낸다면 최 의원과 곽 변호사 측에 지지율 하락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영채 “자본시장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NH투자증권 대표)

SNS 통해 4연임 포기 의사 밝혀
“스스로 정리할 적기 판단” 언급
“금투사 CEO 어려운 자리” 소회

국내 투자은행(IB)부문 1세대로 증권업계내 NH투자증권의 위상을 바꿔놓은 정영채 대표이사 사장이 ‘아름다운 퇴장’을 택했다. 지난 2005년 NH투자증권의 전신인 우리투자증권의 IB 임원으로 몸을 담은지 20여년 만이다. 차기 대표를 선임하기 위한 1차 후보군(롱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시장에서는 4연임에 대한 기대도 있었지만 이번을 ‘스스로 정리할 적기’라고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선정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앞서 전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이번 주총 때까지 역할을 하고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며 “한동안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제 스스로를 정리할 적기라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일 것이다. 그러나 후배들을 먼저 떠나보낼 때 나 스스로도 늘 준비를 하였다”며 “이젠 (NH투자증권도)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대우증권에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부터 NH투자증권 IB사업부 담당 임원을 13년간 지낸 후 2018년 3월 대표로 선임됐다. 2020년 연임, 2022년 3연임에 성공했다.

취임 첫 해 5401억원의 영업이익과 3615억원의 당기순이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2021년에는 영업이익 1조3167억원으로 ‘1조클럽’에 입성했다.

특히 국내 IB 업계 전설답게 굵직한 딜도 줄줄이 성사시켰다.

여의도 파크원 파인엔싱은 2조1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로 단일 증권사

PF 주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3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석유공사(ADNOC)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투자자금을 유치한 것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로는 최대인 것은 물론 국내 증권사가 투자한 인프라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정 사장은 “금융투자사의 최고경영자(CEO),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다”며 “우선 자본시장을 잘 이해해야 하고, 미래를, 고객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 “다른 금융업과는 달리 시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NH투자증권

에서 존재해 끊임없는 변화, 가격탐색 요구에 대응하고 시시각각의 판단이 조직의 흥망성쇠와 연결되어 있어 여타의 업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CEO의 역할을 평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정부, K-조선에 5년간 9조 투자… ‘R&D 로드맵’ 수립

산업부, ‘K-조선 경쟁력 확보 공동대응’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 추진

정부와 조선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가 미래 조선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자한다. 상반기 내 민관 합동으로 관련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정책·사업을 기획해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선3사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이같은 내용의 ‘K-조선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 심화, 친환경·자율운항 등 미래선박으로의 전환, 인력 수급 불균형 등 업계가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정부와 업계가 윈윈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내 조선산업이 당면한 도전은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민관 윈윈의 팀플레이로 헤쳐 나가야 하고, 올해 7000억달러 수출 달성에 있어 조선업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10년이 향후 조선산

업 100년을 좌우할 것인 만큼, 조선산업 대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와 조선3사는 향후 5년간 친환경·자율운항선박·디지털 전환 등에 9조원을 투자한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차세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조선산업 초격차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최초 2030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주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난에 따른 생산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을 전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매년 2000명의 조선분야 전문·현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중 판교와 거제에 미래혁신 인재 양성센터를 개소하고, 구직자 대상 채용연계 교육사업을 통해 생산인력 확보에도 나선다.

업계도 3사 공동으로 해외조선인력 협력센터를 상반기 내 시범 운영, 해외 인력을 현지에서 교육 후 도입하는 지속 가능한 해외인력 도입체계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ODA)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비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우수 해외

생산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와 업계는 이날 협약 내용을 이행할 플랫폼으로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 미래형 조선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안 장관은 “오늘 발족한 이니셔티브를 정례화해 K-조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투자 애로도 지속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업계와 수주·수출 활성화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 애로 데스크와 현장 애로 데스크를 각각 조선협회와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특히 현장 애로는 산업부 실무진을 기업별 전담관으로 지정해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다!다!우
기다!♡

하나뿐인 내 편,
임영웅도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웅은 하나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치우치지 않는 마음 가진 충청”... 한동훈, 이틀째 중원 공략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서 간담회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 준비 밝혀
‘캐스팅 보트’ 충북표심 좌우 판단
청년·육아맘 의견 청취 자리 가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충북 청주를 찾아 전날 충남 천안에 이어 이틀 연속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4·10 총선 ‘격전지 순회’ 첫 번째와 두 번째 일정 모두 충청 지역을 택한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청주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종합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희가 충청에 처음 온 이유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과 정확한 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좋은 정치를 하는 생각으로 충청에서 출발했다”고 방문 배경을 밝혔다.

그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

눈치를 봐야하는 직업이라 생각한다. 그 눈치를 봐서 해드릴 것이 있다면 빨리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치한 지 얼마 안 돼 제가 오히려 순진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

인을 위해 ‘상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용은 별도 요금 체계로 산업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인용이 없다”며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산업용, 공업용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상업용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

했다.

이어 “우리는 소수당이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분에게 밀리지만 그렇지 않다. 저희는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여당”이라며 “우리가 하면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다”라고 자신했다.

충북은 현재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4석을 나눠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말 그대로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다.

이날 방문한 청주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에 패한 곳이기도 하다.

다만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이 청주 지역구 1석을 탈환한 바 있다.

특히 청주는 8개 충북 지역구 중 4곳이 풀려 있는 지역인 만큼, 청주 표심이 충북 전체를 좌우한다고 보고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오후엔 서원대로 이동해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청년 세대의 어려운 점을 경청했다.

오후에는 청원구 문화제조창에서 ‘육아맘’과 간담회를 열고 ‘저출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현물 복지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른 곳에 풀릴만한 재원을 이쪽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격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아이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 어머니에게 자기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며 “결국은 과격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청주 지역에 출마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김진도 후보(충북 청주서원), 김수민 후보(충북 청주청원), 김동원 후보(충북 청주흥덕)와 함께 거리를 돌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이재명-조국 “尹 정권 심판 위해 힘 합쳐야”

지역구·비례대표 연대 모색 기대
조국 “검찰독재 조기 종식 등
담대한 캠페인으로 투표 유도”

제22대 총선 야권의 대표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손을 맞잡으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이 대표와 만나 반갑게 악수했다. 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조국혁신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표로 선출돼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진영의 본질”이라고 추켜세웠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연대나 비례대표 연대를 모색하지 않느냐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나온 ▲윤석열 정권과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 ▲4월 총선에서 범민주 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고 연대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비정당 정책을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 방안과 계획이라는 당의 활동 방향을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현재 대한민국의 질곡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다”면서 “예컨대 검찰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 씨를 범정으로, 검사장 직선제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 독립 등 담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범민주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에 나오게 하겠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 가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경북 지역구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을 찍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오시는 국민들께서 자신들의 다른 한 표를 국민의힘에 주겠나. 이렇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4월 총선에서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을 건널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조국혁신당 창당의 환영과 축하의 뜻을 전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종식하고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고 심판하고자하는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그 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과 한 개가 만 원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걱정해야 하는, 또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이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이 모든 책임은 2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을 극단적으로 퇴행시킨 윤석열 정권에게 있다. 모두가 단결하고, 하나의 전선에 모여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내는 그 국민적 과제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총선 연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조국혁신당 영입인재인 신장식 변호사는 “조 대표는 학익진을 말씀하셨다. 앞장서는 배가 있고 본선이 적을 포위하는 학익진처럼 같이 협력하자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강남·대구·울산 등 5곳에 ‘국민추천제’ 도입

적용 지역구 적어... ‘무감동 공천’

4·10 총선 공천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남 등 5개 선거구에 ‘국민추천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받자 총선을 36일 앞두고 국민추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적은 지역에 적용돼 ‘무감동 공천’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추천 프로젝트’ 대상 선거구를 발표했다. 대상 선거구는 국민의힘 당세가 강한 서울 강남갑·을과 대구 동·군위갑, 대구 북구갑, 울산 남구갑 등 5곳이다.

후보는 6일부터 이틀 간 공고를 거쳐, 8·9일 온라인 접수(전자우편)를 받

는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제3자 추천도 가능하다”며 “배리어프리(barrier-free), 장애가 없는 공천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이 모일 때 진짜 국민의 대표가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후보자는 비(非) 현역의원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면접)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최종 후보는 오는 15일 발표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나 청년들이 도전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신청 자체도 필요하다면 비공개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류성걸(대구 동·군위갑)·양금희(대구 북구갑)·이재의(울산 남구갑) 의원 등은 사실상 컷오프(공천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처음 국민추천제가 제기됐을 때 공천 방식을 정하지 못한 지역구가 30여곳에 달한 것을 감안하면, 적용 지역구가 적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장 사무총장은 “현역과 경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정치 신인에게는 엄청난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혁신선도형 R&D 중심 예산 대폭 확대”

대통령실, R&D 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전문가·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감액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을 언급하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

혁과 관련해 “1년이 채 안 됐지만, 문제시된 시스템을 개혁해서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R&D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실 과기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내주 출범할 ‘혁신선도형 R&D사업 협의체’는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사업을 엮어 이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다.

/박정희 기자 pathfinder@



세상 모든 기술이 빛나는 무대 4만 명의 하이지니어로부터

세상에 빛이 되는 첨단 기술,
SK하이닉스인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각종 호재에 높은 호가 유지... “신규 투자 진입은 힘들 듯”

GTX 노선 따라가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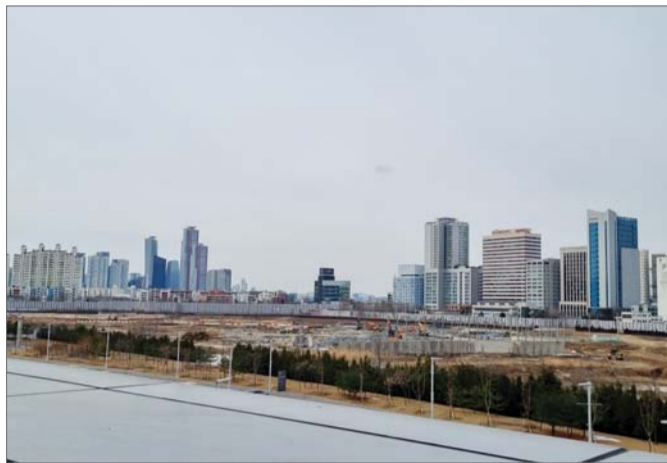
용산역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GTX-B노선 이달안에 승인 등 주민들 기대 높아 관망세 지속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발표 이후 간간이 문의 전화가 오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최근 찾아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래미안용산더센터’ 아파트. 단지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미 여러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이 이미 반영돼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상태”라며 “급매물을 찾는 수요자들이 연락 처를 남기고 가지만 집주인들은 급하지 않은 입장이라서 급매물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래미안용산더센터는 지난 2017년 5월 입주를 시작했다. 용산역 전면구역에 재정비해 지어진 단지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모습.

2개동, 지상 최고 40층, 전용면적 42~84㎡, 총 782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상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하반기 기반 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대 초반에는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지난 2010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등으로 최종 무산된 이후 청사진 부재 등으로 10년째 방

치돼 왔으나 이번 계획을 통해 다시 빛을 보게 됐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4만6000명의 고용 효과와 32조6000억원의 생산 유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지 인근 B공인중개업소 대표는 “GTX-B노선 중 정부 재정이 투입된 용산~상봉 구간이 이달 안에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라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입주 시점에 맞춰 B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라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김대한 기자

집주인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용산~상봉 구간은 총사업비 2조7584억원을 투입해 용산~상봉 간 본선 19.95km와 상봉~중앙선 간 연결선 4.27km, 정거장 총 4개소(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설계에 착수해 현재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철도 지하화 계획을 가시화했다”면서 “높은 호가에 신규 투자 진입이 매우 힘들어 수요가 물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호재의 수혜자는 오래전 투자한 사람들로 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2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하락했다. 전주(-0.03%)보다 하락폭이 줄어들었지만 1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주 하락세를 기록했던 용산구는 포함(0.00%) 전환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용산더센터’는 지난해 11월 전용면적 161㎡가 4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용산푸르지오써밋’의 경우 2021년 2월 이후 매매거래 사례가 없었다. 타 언론사에서 마지막 매매거래로 보도했던 2022년 5월 8일 전용면적 112㎡(25억원) 거래는 4일 뒤인 12일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한 기자 kdh@metroseoul.co.kr

‘비은행 강화’ 우리금융, 이사회에 쏠리는 눈

포스증권 인수 놓고 설왕설래 열악한 재무환경에 인수 늦춰져

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작업에도 불구하고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부담이란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오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공식화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달 6일 2023년 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포스증권 인수설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욱 우리금융그룹 부사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인수합병(M&A) 원칙은 적정 자본비율 내 건전경영 및 주주의 극대화,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이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현재 증권업 진출을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잠재 매물은 검토 가능한 대상으로 최근 언론에 화자되고 있는 증권

사도 그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증권사 인수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이사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 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지난달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29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도 포스증권 인수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우리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는 포스증권 인수에 긍정적이지만 포스증권의 적자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포스증권은 지난해 매출 139억6000만원, 영업손실 59억1000만원, 당기순손실 59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72억7000만원) 대비 순손실 폭은 약 19% 줄었지만 만성적자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순손실 규모는 360억원이다.

지난해 60억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포스증권의 결손금 규모는 지난 2022년 약 147억원에서 지난해 207억원까지 증가했다.

포스증권의 자본총계는 지난해 말 기

준 485억원으로 포스증권 자본금(698억원)이 자본총계를 웃도는 ‘자본잠식’ 상태다.

포스증권의 열악한 재무환경이 인수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부분은 없고, 실사단을 파견하지도 않은 상태”며 “포스증권 이외에도 잠재매물을 찾아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비은행 강화’가 절실하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권업 진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이달 22일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금융 내부관계자는 “오는 22일 정기이사회는 임종룡 회장 취임 후 첫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이날 포스증권 인수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포스증권 인수에 대한 회의는 지속하고 있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베트남우리銀, 교민 대상 리테일 영업 강화

하노이에 ‘미딩출장소’ 신설 한인 전담 코리안데스크 설치

베트남우리은행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미딩출장소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베트남우리은행은 이번 미딩출장소 신설을 시작으로 현지 한국인 대상 리테일 영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딩출장소는 한국인 고객 전담 창구인 ‘코리안데스크’가 별도 설치된다.

현지 결제가 대부분 QR송금 방식으로 이뤄지는 점에서 착안해 현지 한국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매출 관리기(P OS)와 연동한 실시간 입금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지 교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하노이 롯데몰과 롯데센터에도 영업점을 개설해 현지 한국인 대상 리테일 영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베트남우리은행 미딩출장소 외부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지화에 집중한 베트남우리은행이 작년 한 해 동안 디지털 기반 리테일 고객이 20만명이나 증가할 만큼 우리은행의 존재감이 커졌다”며 “올해는 베트남 전역에 영업망을 갖춘 업체의 가맹점들이나 자영업자 고객의 접근성과 유치를 집중하는 등 기업과 리테일을 연계한 전략적 영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용 기자

케이뱅크, 한국투자증권과 IRP 계좌개설 서비스

앱 내 상품탭 중 투자메뉴서 간편하게 퇴직연금 가입 가능

케이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손잡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직접 퇴직 계좌에 퇴직금이나 여유자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말한다.

이번 제휴는 고객이 간편하게 IRP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케이뱅크 앱 내 상품 탭 중 투자 메뉴에서 ‘퇴직연금IRP’에 들어가면 손쉽게 가입 가능하다. ‘퇴직연금 바로 만들기’를 누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연결돼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IRP 계좌개설 서비스 시작을 기념해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달 31일까지 케이뱅크 앱을 통해 IRP계좌를 만들고 1원 이상 입금하면 가입자 모두에게 신세계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입금 후 다음달 지급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IRP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아 이번 제휴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혜택을 고민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하나銀,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설팅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 업무협약은 무역보험에 미가입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을 통해 수출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무역보험 미가입 수출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컨설팅 ▲추심대행 서비스의 기업 부담 수수료를 지원한다.

해외 미수채권 발생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착수금 없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해외채권 회수 컨설팅 및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외채권 회수 성공 시 발생하는 추심대행 성공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한화오션-HD현대중, 전면전 양상 “임원차원 개입” vs “억지 주장일뿐”

KDDX 군사기밀 유출 논란

한화오션, 엄정한 수사 촉구
“국방사업 신뢰가 걸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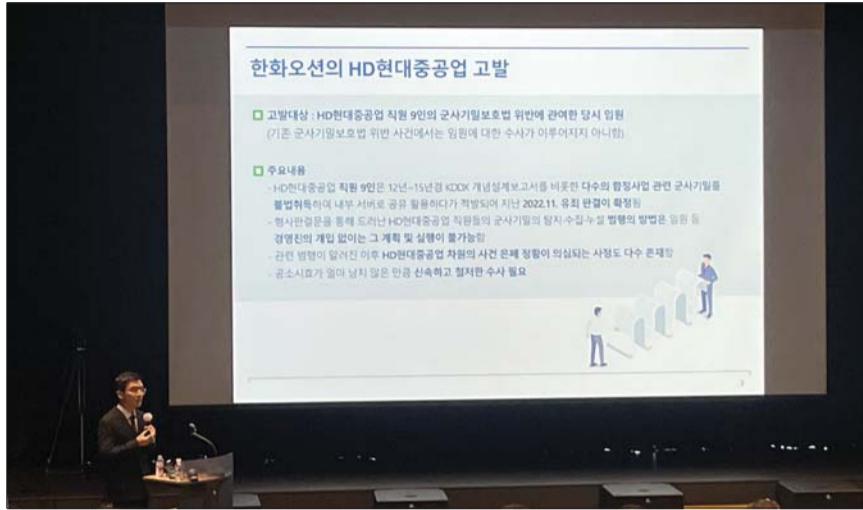
HD현대중 “이미 종결된 사안”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 해당 임원의 개입을 주장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기밀 유출을 한 업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실체를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화오션은 5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입장 설명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 고발 배경에 대해 “사전에 임원과 고위직 간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군사기밀 열람을 위한 시도 자체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재 라인만 보더라도 당연히 임원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발표를 맡고, 정원 울촌 변호사와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담당 수석부장이 배석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자체적으로 확보한 ▲판결문 ▲공무원 형사재판 증거목록 ▲공무원 형사사건기록 등을 공개했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는 KDDX 개념 설계도 유출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임원들의 개입이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구 변호사는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해 비인가 서버에 저장하는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고, 방위산업의 정의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경쟁업체 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함정 관련 국방사업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서 고발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분

명히 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임원 개입 여부 등 한화오션이 문제 제기한 사안은 이미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일방적으로 짜깁기하여 사실관계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내셔널 합병 2년차

영업이익 1조 시대 ‘활짝’ 그룹 핵심 계열사 급부상

에너지·철강 등 주요사업 투자 확대
이계인 사장 ‘플랫폼 기업’ 전환 속도

합병 2년차를 맞이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철강 업황 침체로 인한 포스코 그룹의 부진을 메워주는 핵심 계열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계인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철강·식량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거침없는 투자를 이어가는 등 ‘글로벌 확장’을 통한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기존 주력 사업과 신사업의 촘촘히 엮는 경영을 펼치며 회사 성장을 견인할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연간 매출 33조 1328억원, 영업이익 1조 1631억원 실적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1조(兆) 시대를 공식화하며 합병의 시너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는 그룹 전체 영업이익(3조 5000억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합병 2기를 맞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글로벌 구동모터코아 생산기지 확장에 속도를 낸다. 이계인 신임 사장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이끌게 되면서 모빌리티와 함께 에너지·철강·식량 등 주요 부문 융합과 확장을 통해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23일 이사회에서 구동모터코아 폴란드 신공장장과 멕시코 제2공장 건설을 승인했다. 이로써 포항·천안 등 국내를 포함해 멕시코, 폴란드, 중국, 인도 등 5개국에 걸친 구동모터코아 글로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구동모터코아는 전기차 핵심 부품으로 통한다. 폴란드 남서부 브제크에 들어서는 공장은 구동모터코아 사업의 유럽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브제크는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 내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생산기지와 인접해 있어 현지 조달에 유리하다. 10만㎡의 부지에 세워질 신공장은 올해 6월 착공해 2025년 5월 완공할 계획이다. 생산계획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 2030년에는 연 120만대 구동모터코아 생산체제를 갖추게 된다.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10월 라모스 라모스 아리스페에 준공한 1공장 인근에 건설된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3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 2공장이 준공되면 2030년까지 1공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본사 전경 (원형사진) 이계인 사장

2공장 합산 연 250만대 생산체제가 완성된다.

특히 멕시코 2공장은 지난해 9월 수주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구동모터코아 272만대 공급과 북미 고객사의 현지생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에너지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해 사업간 균형을 통한 성장도 추진하고 있다.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2025년을 목표로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3배 증산 체제(20→60PJ/년)를 구축해 나간다. 이미 현지 8개 고객사와 총 150PJ 규모의 증산가스 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의 수송을 담당하는 미드스트림에서는 20만 kl 용량의 광양 6호 탱크 증설을 올해 마무리하고, 총 40만 kl 규모의 7, 8호기 탱크도 2026년 준공 목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더욱 힘을 싣는다. 신안에서 육상풍력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을 대표해 해상풍력 중심 사업 개발을 본격화하는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서해권·서남권·동남권에서 총 2.0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권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계인 사장은 “회사의 미래 지향점은 이종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기업”이라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시켜 나간다”라는 계획을 설명하고 임직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항공업 기본 충실”... 대한항공, 안전문화 확립 힘쓴다

조원태 회장, 고객중심·안전운항 강조
세이프티 데이·해저드 리포트 등 활동

“최상 서비스 제공하는 가장 안전한 항공사 돼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끝나고 항공업계에 변화와 혁신이 싹트는 심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안전 운항과 고객 중심 서비스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조 회장이 ‘안전’을 강조한 것은 항공기 이용 승객이 늘어나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안전은 고객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글로벌 항공사가 사상 최대 규모인 47억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 회장이 내건 핵심 가치인 절대적인 안전 운항을 위해 다양한 고객 서비스와 제도 운영, 기단 현대화,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전사적 차원의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제1회 ‘세이프티 데이(Safety Day)’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세이프티 데이’로 지정했다. 대한항공의 안전 전문화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4일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서 창립 55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조 회장은 고객·안전 중심 서비스를 강조했다. /대한항공

들어가며, 항공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문화 제도도 활발하다. 대표적으로 사내 자율보고제도인 ‘해저드 리포트’가 있다. 해저드 리포트는 임직원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예컨대 공항 또는 항공기 내외에 항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 또는 위험물 발견 시 해저드 리포트를 작성 후 보고한다. 이를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후 우수 보고서를 선정해 월 1회 시상식을 개최하는 등 안전 문화를 고취하는 SMS Excellence 포상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안전운항을 위한 기단 현대화에도

적극적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에어버스의 A321neo 항공기 20대 추가 주문 계약을 체결해 2030년까지 총 50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잉의 B787-9 10대, B787-10 20대, B737-830대 등 총 110대의 신형기 도입에 나선다. 또 A330, 보잉 777-200ER 등 경년기는 순차 퇴역시켜 보유 항공기 현대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 대한항공은 더욱 안전한 기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대한항공은 1월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륙 전 기내에서 상영되는 ‘기내 안전 비디오’를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영상에서는 대한항공 승무원 복장을 한 ‘버추얼 휴먼(가상인간)’ 리나가 휴대 수하물 보관, 좌석벨트 착용법 등 기내 안전 수칙을 가상 공간에서 사실감있게 보여준다. 기내 안전 수칙을 보다 쉽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대한항공은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2005년 국내 항공사 최초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개발한 민간 항공사 대상 안전 심사(Audit) 프로그램인 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 인증을 획득했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쿠루,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 사업 본격화

LG에너지솔루션 안전진단 기술 활용

LG에너지솔루션 사내 독립기업 ‘쿠루(KooRoo)’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쿠루는 전기 이륜차 BSS(Battery Swapping Station·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5일 밝혔다.

쿠루는 전기 이륜차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대신 완충된 배터리로 간편하게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안전진단 기술을 활용해 쿠루의 BSS를 실시간 관리하며 사용자들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서현정 기자

“시가 다 아니야”... 빨라진 지문인식, 탄탄한 내구성 장점 ↑

꼼꼼 IT 리뷰

갤럭시S24

디스플레이 자연스러운 색감
눈에 부담 줄이고 화면 또렷
차세대 지문인식 센서 탑재
닿기만 하면 대기없이 열려
무게중심 넓은 면적으로 분산
AOD·AI 작동 효과음 등 연출

“갤럭시 언팩 행사를 1시간에 맞추기 위해 많은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이후 갤럭시AI를 제외하고는 변화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렇게 답변했다.

실제로 삼성전자 유튜브 채널 다시 보기를 기준으로, 이번 갤럭시 언팩 2024 영상 길이는 1시간 13분 16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만 상영했던 2021년 1월 언팩(1시간 17분 23초) 수준으로 길다. 갤럭시AI가 그만큼 혁신적인 변화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또다른 장점을 모두 자랑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시장 기대치는 3500만대 전후,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최고 수준임은 물론 약화일로로 겪던 스마트폰 시장도 모처럼 반등을 성공했다.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AI, 갤럭시AI가 가장 큰 성공 요소로 꼽히지만, 실제 사용해본 갤럭시 S24 울트라라는 평범한 바형 스마트폰으로 생각해도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디스플레이가 한눈에 알아볼만한 변화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아



동역 기능을 상단바에 배치해 손쉽게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몰레드 2X 터치 디스플레이지만, 색감을 더 자연스럽게 설정했다. 호불호가 갈린 탓에 결국 화사한 색감을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단행했지만, 구형 모델을 사용하던 입장에서 눈에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또렷해 인상적이었다.

지문 인식도 특별하다. 손가락을 대면 바로 열린다. 차세대 지문인식 센서를 탑재했기 때문.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인식 부위에 손가락을 대면 대기 화면 없이 바로 켜지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내구성이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휴대전화를 험하게 다루는 편이라 구입하자마자 떨어뜨리는 실수를 겪었다가 몇번을 안도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 충격이 클 법도 한데, 무게 중심을 세심하게 설계했는지 넓은 면적으로 떨어지는 경향도 발견했다. 코닝 고릴라 아머 글래스 역시 굵힘에 아주 강력했다.

10배줌이 없어졌다고 아쉬울 필요도

없었다. 프로비주얼 엔진으로 광각 수준 화질을 낼 수도 있지만, 새삼 5배줌 카메라를 훨씬 자주 쓴다는 것을 알게됐다. 종전에는 10배줌에서 줄여서 사용하던 배율, 5배줌을 쓰다보니 막상 일상에서는 10배줌 사용 빈도가 많지 않았다.

연출 효과도 진일보했다. 이미 입소문을 탄 AOD는 물론, AI를 작동할 때 화면 효과도 마음에 들었다. 마법처럼 무언가 피어나오는 모습, 웹 브라우저를 번역하거나 갤러리를 편집할 때 재생된다.

갤럭시AI 기능이야 당연히 장점,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 특히 활용성이 좋았다. 이제 영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자녀를 위해 긴급하게 상담바를 내려 동역 기능을 실행하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 뛰어노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 ‘인스턴트 슬로모’로 보고 있으면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삼성 키보드를 통해 작동하는 번역 기능은 외국어로 메일을 쓰거나 채팅을 할 때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었다.

기존 AI 기능도 대폭 개선됐다. 삼성 갤러리 앱에서 검색을 할 때 특이하게 느껴지는데, 장소나 배경 모습은 물론 텍스트까지 읽어서 검색어에 따라 사진을 발 빠르게 찾아준다.

물론 아직은 개선할 점도 눈에 띈다. 다른 앱과는 달리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환하거나 번역하려면 별도 조작이 필요하고, 노트 어시스트를 자유롭게 쓰기도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평면 디스플레이도 양날의 검, S펜을 쓰기는 훨씬 편해졌지만 그림감이 예전만 못하고 무게감도 더 느껴졌다. 옛지 패널을 즐겨 쓰던 사용자들은 쓰기 불편해졌다는 아쉬움도 내비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HD한국조선해양, 14척 2.7조 규모 수주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수주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 새 오세아니아, 유럽 소재 선사와 LNG운반선 4척, 자동차운반선(PCTC) 2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 중형LPG운반선 2척, 석유화학 제품운반선(PC) 4척 등 총 14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총 2조 7218억원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24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17만4000입방미터(m³)급 LNG운반선 4척을 수주하며 이번 수주 행진의 포문을 열었다. 계약 가격은 역대 최고가인 2억7000달러로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8년 1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26일에는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LN

G 이종연료 추진엔진이 탑재된 7500UNIT(1UNIT: 자동차 1대)급 자동차운반선(PCTC: Pure Car and Truck Carrier) 2척을 수주했다. 총 계약 금액은 3563억원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8년 5월까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된다.

HD한국조선해양은 27일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총 3439억 원 규모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6년 12월까지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수주 행진은 3월에 들어서도 이어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1일 유럽과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각각 4만 5000입방미터(m³)급 중형LPG운반선 2척과 11만 5000톤급 석유화학 제품운반선(PC) 4척을 수주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세계 최초 냉장고 IoT보안 ‘최고’ 등급

AI비전 인사이트 등 인공지능 결합

삼성전자 냉장고가 높은 보안성을 확인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가전 업계 최초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에 UL 솔루션즈 주관 사물인터넷 보안 평가 최고등급 ‘다이아몬드’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는 AI 비전 인사이트 등 다양한 AI와 IoT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AI 스크린’ 시대에서 스마트 홈 허브 역할도 맡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검증을 통해 개인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성능을 확인받았다고 평가했다. ▲악성 소프트웨어 변조 탐지 ▲불법 접근 시도

방지 ▲사용자 데이터 익명화는 물론 ▲항상 신뢰 가능한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 제공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 취약점 테스트 ▲보안 취약점 조기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과했다.

AI 비전 인사이트는 식재료 입출고 순간을 자동으로 촬영해 푸드리스트를 만들고 ‘삼성 푸드’ 서비스로 맞춤형 레시피를 추천해준다. 우측 도어에 32형 풀HD 터치스크린을 장착하고 ‘탭뷰’ 기능을 제공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 출시하는 총 4개 비스포크 냉장고 패밀리허브 플러스 모델에 대해 이번 UL 솔루션즈 검증을 받았다.

/김재용 기자

SK케미칼-효성첨단소재-한국타이어

재활용 페트로 만든 타이어 ‘아이온’ 상용화

지속가능 원료 비중 45% 포함
“친환경 원료 적용 더 확대할 것”

첨단 소재 대표 기업 3사가 깨끗한 타이어를 상용화했다.

SK케미칼과 효성첨단소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는 ‘순환재활용 페트’ 섬유 타이어 코드’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개발하고 상용화한다고 5일 밝혔다.

타이어코드는 타이어 형태를 유지하고 하중을 견디는 섬유 재질 보강재다. 내구성능과 주행성 및 승차감에 직결되는 기술, 종전까지는 콘셉트나 시제품에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왔다.

이 제품은 화학적 재활용 페트를 기반으로 만든 타이어코드를 타이어 완제품 상용화로 이어간 국내 첫 사례다. 전기차가 배터리로 무거운 만큼, 가벼운 무게와 내구성도 충족했다.

3사는 2년여간 협력을 통해 공동 개발에 성공했다. SK케미칼이 순환재활용 페트 ‘스카이펫 CR’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효성첨단소재가 재활용 폴



SK케미칼-효성첨단소재-한국타이어가 상용화한 지속가능 타이어.

리에스터 원사 타이어코드를 개발해 한국타이어 아이온에 적용했다. 이 제품은 지속가능 원료 비중을 45%로 충족, 친환경 기준이 강화하는 유럽에서 엄격한 신뢰성 검증을 거쳐 사용 승인 후 신차용 타이어로 장착할 예정이다.

3사는 이번 개발이 화학업체와 소재 기업, 타이어 제조사가 ‘지속 가능성’으로 의기 투합한 성과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본희 한국타이어 연구개발혁신총

괄 부사장은 “한국타이어는 2050년까지 모든 타이어에 지속가능 원료를 100%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을 중심으로 친환경 원료 적용을 확대해 글로벌 타이어 업계의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정 효성첨단소재 타이어보강재 PU 상무는 “최근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의 지속가능소재 적용을 늘리고 있고, 타이어회사들 또한 ISCC PLU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국내외 고객들과 협업을 통해 친환경 제품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SK케미칼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공동개발은 온실가스 감축과 소재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소재 생산자와, 중간재 제조사,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협업의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DMI, 수소 모빌리티 제품 라인업 공개

‘2024 드론쇼코리아’ 참가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이하 DMI)이 국내 최대 드론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DMI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DMI는 전시 공간을 모빌리티와 수소 존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 제품과 시제품(프로토타입),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시할 제품 중에는 처음 공개되는 수소 수직이착륙기(VTOL) 시제품도 포함돼 있다. 현재 개발 중인 VTOL은 비행시간 2시간 이상에 기체 크기 2m 내외, 중량 25kg 미만 등 군에서 운용하는 대대급 무인정찰기 기준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회사는 설명



‘2024 드론쇼코리아’에 참가한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부스 랜더링 이미지.

했다.

DMI는 전시회에서 VTOL뿐만 아니라 수소 드론인 DS30W, DT30X, 육공분리체 시제품 등도 선보인다. DS30W는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을 장착할 수 있는 드론 기체로, 기존 제품 대비 내풍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체형 수소 드론인 DT30X는 높은 비행 효율에다 방수, 방진 등에서 내구성을 갖췄다.

/양성운 기자 ysw@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주) 베지노믹스페어 



증권주, 적극 주주환원으로 상승세... 주가 전망도 '맑음'

KRX 증권지수, 올해들어 17%↑
키움증권 35%, 미래에셋 13% 올라
실적 악화·부동산 PF로 부진했으나
기업 밸류업으로 저PBR주 수혜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일부 저PBR(저가순자산비율) 종목이 조정을 받은 것과 달리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펴는 것으로 평가받는 증권업주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올해들어 약 17% 상승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밝힌 지난 1월 24일을 기준으로 하면 25%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약 8%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개별 종목의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유토이미지

키움증권은 올해들어 35% 가까이 올랐다. 이날은 장중 한때 13만59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3%가량 뛰었다. 전날엔 장중 최고 2.5%까지 오르며 9200원을 기록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22%), 한국금융지주(21%), 삼성증권(7%) 등이 크게 상승했다.

증권주는 연초 실적 악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 공개된 지난 1월 말부터 저PBR 수혜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지난 26일 이후 그동안 상승했던 저PBR주들은 최근 상승폭을 일

부 반납하며 단기 조정에 들어갔다.

증권주가 상승하는 배경엔 증권사들이 정부 정책보다 한발 빠른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0월 중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주주 환원율 30%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3년간 사업연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현금 배당하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부터 3년간 자사주를 매년 보통주 1500만주와 우선주 100만주 이상을 소각하기로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39%인 주주환원율을 2026년까지 최소 3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전년보다 배당금을 늘려 1주당 22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배당 성향은 35.8%로 1년 전과 동일하다.

메리츠증권을 소유한 메리츠금융지주도 주주환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

난해 주주환원율은 51%로, 금융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6400억원 규모로 자사주를 소각했고, 4483억원(주당 2360원)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해 주주환원액이 1조883억원에 달한다.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지난달 22일 실적발표회에서 "배당가능 이익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식의 저평가가 깊게 지속될 경우, 50%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이상의 자사주 매입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실적 기대감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증권사들의 주가가 당분간 양호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22.4조원으로 1월 대비 15% 증가했는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주환원 확대 재료가 있는 증권사는 당분간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부동산 PF 등 증권사 리스크관리 집중점검

금감원, 금융사 유동성·건전성 관리
자본시장 리스크 체계적으로 진단
불합리 영업관행·불법행위 엄정 대응

감독당국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해외부동산 등 금융투자업계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집중 점검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여건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부동산PF, 해외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이 높은 금융투자업계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원장보는 또 "부동산 시장의 질

서있는 연착륙을 위해 금융투자업계에 합리적인 PF수수료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국내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황 부원장보는 "랩·신탁 관련 고질적인 영업 관행과 직무정보를 활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 성과 만능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난만큼 업계 스스로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목표로 다각적인 감독·검사 업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금융투자 부문과 관련해서는 토권증권,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등 신 성장산업에 대한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펀드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공모펀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바꾸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감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진입 및 유지요건을 검토하고, 대체투자펀드의 편입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개선안 마련 등 펀드시장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모색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펀드 관련 검사를 할 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연계하는 것처럼 복합사건의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통합·연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정기검사 비중을 축소해 사모운용사 전수검사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증권사 검사 등 중대·긴급사건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제재를 내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사업 참여사 모집

연간 최대 9600만원 바우처 제공

코스콤이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모집 기간은 3월 18일까지로 참가기업 모집 설명회는 3월 6일 온라인 줌을 통해 진행된다. 60개 이상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연간 최대 9600만원까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며, 필요시 기존시스템 이관지원, 보안컨설팅, 모의해킹 등의 서비스도 지원한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상무는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안정적인 금융클라우드를 이용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IT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비



코스콤 본사 전경.

/코스콤

용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 도움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코스콤은 지난 2월 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2024년 금융클라우드 지원사업 운영자'로 선정돼 5년 연속으로 사업을 이어가게 됐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테크TOP10+10%프리미엄ETF, 순자산 1000억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

AI 수혜 기대되는 빅테크 기업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 순자산은 1180억원이다. 올 들어 신규 상장된 주식형 ETF 16종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다가올 AI 시대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엔비디아, 애플 등 미국 나스닥100 지수 내 상위 10개 미국 빅테

크 기업에 투자한다. 글로벌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강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2023년 미국 경제를 주도했으며, 신성장동력인 AI를 바탕으로 장기적 성장이 전망된다.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져 기술주 및 대형주 투자가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빅테크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동시에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 ETF는 100% 콜옵션을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콜 ETF와 달리 나스닥100 옵션 매도 비중을 평균 40%로 제한한다. 부분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면서도

연간 +10%가량의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한다. 지난달 상장 이후 첫 분배금 92원을 지급하며 분배율 0.86%를 기록했다. 이는 연 10% 분배율을 위한 월 목표치(0.83%)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김수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략ETF 운용본부 선임매니저는 "국내 최초로 15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는 'TIGER 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를 통한 격주 배당 포트폴리오가 인기를 끌고 있다"며 "TIGER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ETF 등 TIGER+%시리즈를 활용한다면 격주로 인컴수익을 확보하면서 미국의 우량 배당주와 성장주의 밸런스를 갖춘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NH투자증권, 차기 대표이사 후보 압축

윤병운, 유찬형, 사재훈 3명 확정

NH투자증권의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윤병운 NH투자증권 IB1사업부 대표(부사장)와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부회장,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으로 압축됐다.

NH투자증권은 5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으로 이 같이 3명을 확정했다. 늦어도 오는 12일에는 최종 1명을 선정해 이달 26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숏리스트는 내외부 출신에 증권업계

외부 인사까지 포함됐다.

내부 출신은 IB1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병운 부사장으로 현 정영채 사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외부 출신은 사재훈 전 삼성증권 부사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 전 부사장은 삼성증권에서 채널영업부부장과 자산관리본부장, 리테일부부장 등을 지냈다.

유찬형 농협중앙회 전 부회장은 자본시장 경험은 없지만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기획조정본부장, 농협자산관리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안상미 기자

MS, AI 비서 확장도구 속속 공개

재무팀 업무량 1/6 수준으로 경감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

반복작업·업무단계 간소·자동화
하반기 코파일럿 통해 무상배포
엑셀 등 소프트웨어와 연계 활용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월 예고한 자사 생성형 인공지능(AI) 비서 코파일럿(Copilot)의 확장 도구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이미 타기업이 선점한 영역까지 아우르며 개발, 출시 되는 코파일럿 확장 도구들이 향후 관련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일(현지시간)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를 미리보기 버전을 공개하고 재무용 코파일럿 챗봇을 통해 자사 재무팀의 업무량이 1/6 수준으로 경감했다고 밝혔다. 포 파이낸스는 하반기 중 코파일럿을 통해 무상 배포 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는 반복적인 재무 작업을 간소화 하고 업무단계를 자동화하며 자금 흐름의 시각화를 제공하는 재무 업무용 생성형 AI 도구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포함돼 기업용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엑셀, 아웃룩, 팀즈 등 다른 소프트웨어와 다이내믹스 365, SAP 등 ERP 시스템과도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찰스라마나마이크로소프트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 총괄부사장(CVP)은 "회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 부서는 더욱 전략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금융 전문가 62%가 데이터 입력 및 검토 주기의 힘든 과정에 관여 있다"며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는 재무 작업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인공지능 비서 코파일럿의 확장 프로그램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의 시각화 자료를 발표 중인 모습. /MS

간소화하고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재무가 비즈니스에 조언과 통찰력을 제공해 그들이 더 많은 전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내에서 이루어진 테스트에서 코파일럿 포 파이낸스는 소속 2000명의 직원이 매주 1~2시간씩 소모한 재무수치 비교 조정 작업을 매주 10~20분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해당 작업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의 재무팀이 수행하는 일상 업무다.

현재 글로벌 재무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은 허브스팟(HubSpot)과 세일즈포스(Salesforce)가 선점 중인 상황이나 코파일럿을 통해 포 파이낸스가 무료 배포되면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은 생성형 AI를 접목한 자동 보고서 출력 등을 개발 중이나 포 파이낸스와 관련한 입장은 따로 표명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일에도 공식 블

로그를 통해 윈드라이브용 코파일럿 기능을 공개했다. 15테라바이트 이상 용량을 제공하는 윈드라이브 특성상 사용자는 필요한 파일과 문구를 찾기 위해 검색에 긴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코파일럿은 파일 확장자와 데이터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빠르게 검색 및 요약, 내용 추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 관계자는 코파일럿과 관련해 "단순히 MS가 OS시장에서 갖는 점유율과 비용 등을 토대로 코파일럿 관련 툴들이 가질 시장 위력을 추정하기란 어렵다"면서 특히 업무용 SW의 경우 각 기업이 맞춤형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비영어권 시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목할 점은 MS가 현재 오픈AI의 최대 투자 기업이자 동시에 생가 생성형 AI 기술 선도 기업으로써 보여줄 AI 기술"이라며 "그동안 MS가 공개한 많은 기술과 SW가 업계 표준화 한 만큼 코파일럿 관련 도구와 이들의 결과물이 향후 표준화 할지도 주목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oul.co.kr

삼표 '층간소음 저감' 고성능 몰탈 개발

물 부어 바로 사용... 2종 출시

삼표산업이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몰탈을 개발했다.

몰탈은 일반 시멘트와 달리 물만 부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건설 자재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향후 현장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고성능·고밀도 몰탈 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삼표산업은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재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최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뛰어넘는 저감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 몰탈은 기존 바닥구조에서 기포 콘크리트 층을 없애고 몰탈 층의 두께를 강화(기존 40

mm→70mm)한 제품이다. 물을 흡수하지 않는 완충재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완충재 위에 몰탈을 직접 시공하면 일반 몰탈의 경우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고성능 몰탈의 경우 물이 분리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고 견고한 마감이 가능하다.

고밀도 몰탈은 밀도가 높은 골재를 사용해 단위 면적당 몰탈의 밀도를 증가시킨 제품으로, 기존 몰탈을 대체해 시공(40mm)하거나, 몰탈 층의 두께를 증가(70mm)시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몰탈은 콘크리트 분야에서 삼표산업만의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과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로 층간소음 저감과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일렉트릭가 지난 설 연휴 충전난 해소를 위해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서울방향)에 설치한 임시 전기차 충전소 전경. /SK일렉트릭

SK일렉트릭, 누적충전 1000만kWh 돌파

전국 61개 고속도로에 198기 구축

SK일렉트릭 전기차 충전기로 전기차가 6000만km를 더 달렸다.

SK일렉트릭은 지난 1월을 기준으로 전기차 1000만kWh 누적 충전량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2월까지의 1만 200만kWh다. 전비를 5km/kWh로 계산하면 6000만km를 달릴 수 있는 수준이다.

SK일렉트릭은 전국 61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198기 전기차 충전기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10월 '고속도로 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구축' 1차 사업공모에 사업자로 선정 후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6개월만에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SK일렉트릭은 빠른 충전속도를 장

점으로 꼽았다. 52기가 350kW, 146기가 200kW 용량이다. 350kW 초급속 충전기의 경우 아이오닉6 기준 18분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한 속도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가 대부분 7kW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50배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충전기 관리 상태도 호평을 받았다. SK일렉트릭가 지난해 '2023 SK일렉트릭 하이웨이 지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속도로 충전소를 포함한 표본 조사 결과, 정상 가동률 99.4%로 집계돼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SK일렉트릭은 충전기 관제시스템에 충전 불가 상태로 감지되는 경우 24시간 이내 현장 출동 및 조치하는 전담 관리팀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인터배터리 2024' 참가

삼성SDI '초격차 기술' 배터리 라인업 선보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 ASB 공개
9분만에 8%→80% 충전기술 발표
20년 초장수명 배터리 계획 '주목'

삼성SDI가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 로드맵과 초급속 충전, 초장수명 등 배터리 '초격차 기술'들을 대거 선보인다.

삼성SDI는 오는 6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인터배터리 2024'에 참가해 전고체 배터리 리더십

을 공고히 하고, '초격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SDI는 업계 최고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900Wh/L ASB(All Solid Battery)의 양산 준비 로드맵을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한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ASB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는 차세대 배터리이다.

업계 최초로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도 발표한다. 회사는 리튬이온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하고 저항을 감소시켜 9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 기술을 개발 중이며 2026년 양산 목표이다. 해당 기술은 기존 P5 배터리 대비 충전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년간 사용 가능한 초장수명 배터리의 2029년 양산 계획도 공개 될 예정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 '이차전지소재 풀 벨류 체인' 공개

소재 원료생산 단계부터 소개

포스코그룹이 '인터배터리 2024'에서 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포

스코홀딩스 주관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네셔널, 포스코퓨처엠을 아우르는 그룹 이차전지소재 풀 벨류 체인(Full Value Chain)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그룹을 대표해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했지만, 올해부터는 포스코홀딩스

주도로 이차전지소재 원료생산 단계부터 소개하며 기존보다 한층 더 영역을 확대했다.

포스코그룹은 일단 올해 부스 규모를 전년 대비 약 30% 넓은 360㎡로 늘렸고, 그룹 이차전지소재 벨류체인의 구성과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순환하는 원형 구조의 모형과 영상용 미디어월을 전시관 중앙에 핵심 전시물로 배치했다. /양성운 기자 ysw@

BMW, PHEV 세단 '뉴 530e' 공식 출시

최고출력 63%↑... 상품성 끌어올려

BMW코리아는 뉴 530e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뉴 530e는 PHEV 세단으로, 이전 세대보다 상품성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다.

최고출력을 63% 높인 184력 전기모터에 190마력 트윈터보 터보 엔진을 조합해 최고출력이 299마력에 달하고, 전기모드 주행거리도 18.7kWh 용량 고전압 배터리로 73km나 달린다. 기술린 엔



BMW 뉴 530e.

진을 더해 최대 751km까지 주행 가능하다. 연비는 15.9km/L이다. /김재용 기자

“간병비 월 370만원… 외국인 노동자 늘려 비용 완화해야”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
간병비 2016년 대비 50% 상승
육아 돌봄 서비스 월 264만원
고령화·인력난 심화에 비용 ↑

월 370만원. 어르신 한 명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드는 비용이다. 아이를 한 명 돌보는데 드는 비용은 월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웃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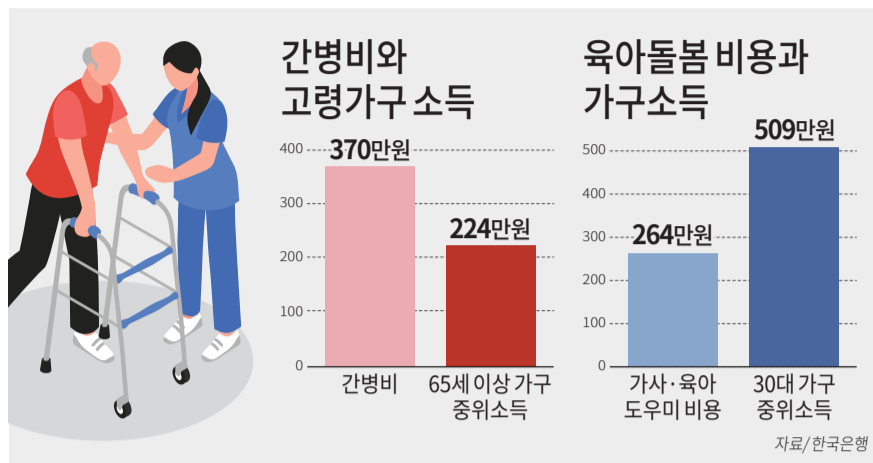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BOK이슈 노트: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에 따르면 노인 돌봄을 위한 간병비는 2016년과 비교해 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간병비용은 월 평균 370만원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육아 돌봄 서비스도 같은 기간 37% 상승했다. 지난해 기준 육아 돌봄 비용은 10시간 기준 264만원으로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상회했다.

◆ 돌봄서비스 인력난에 비용 증가

돌봄서비스비 비용이 상승한 이유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돌봄서비스직 구직자 1명당 빈자리 수는 1.23개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설치·정비·생산직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민석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돌봄서비스직 일자리가 공석일 경우 한달 이내에 채워질 확률이 팬데믹 이전 80%이상에서 최근 50% 이하로 낮



아졌다”며 “앞으로 하락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력난이 심화돼 비용이 치솟을 경우 피해는 취약계층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노인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간병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저소득 계층의 비용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소득 하위 10~40%인 노인의 경우 식사, 보행 등의 일상생활동작(ADL)과 대중교통 이용 등 자립적 생활(IADL)이 각각 15.4%, 13.4%로 고소득계층보다 높은 상황이다.

채 과장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40%에 달한다”며 “노인의 절반가량은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빈곤층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육아돌봄 서비스는 피해가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 및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육아 돌봄 서비스의 경우 20~30대 여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이 가사 및 육아도

우미 비용보다 낮아 퇴직을 하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외국인 노동자 도입 불가피

이날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채 과장은 “현재 돌봄서비스직의 경우 50대 이상이 83%를 차지하고 있다”며 “젊은층의 경우 돌봄서비스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국내 인력만으로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조정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돼 있어 외국인 과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차별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도입되더라도 대다수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취약계층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73년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한 홍콩은 1990년까지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해 그 수가 7만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상대임금이 하락하

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수는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1990~2000년 중 0~5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5%포인트(p)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개별가구가 사적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가구가 사적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ILO협약과 무관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이 같은 방식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했다. 임금은 국내 가사도우미의 15~24% 수준이다.

채 과장은 “급여는 낮지만 고용주는 식사와 주거, 의료비, 항공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낮은 임금으로 인권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들의 업무만족도는 높다”고 말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일본, 독일, 영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현행제에서 시행이 가능하고,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채 과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될 경우 기존에 근무한 내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문제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외국인 근로자와 차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농식품장관

“농촌 디지털 전환 등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 등 ‘3대 대전환’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농업인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소득·경영안정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K-무브스쿨 2418명 모집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상반기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연수생 모집에 나선다.

공단은 5일 2024년도 상반기 K-Move스쿨 운영기관 6곳(15개국, 129개 과정)을 선정, 운영기관에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연수생 24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2188명의 연수생이 참여했다.

K-Move스쿨은 연수생에게 여학과 직무교육, 취업알선 및 현지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해외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 선정된 연수과정은 ‘미국(팜,사이판) 호텔리어 전문인력 양성과정(백석대)’, ‘미국 셰프 전문인력 양성과정(대림대)’, ‘싱가포르 호텔실무자 취업연수과정(한양여대)’, ‘일본 공항서비스직 취업과정(더드림버스)’ 등이다. 국가별로 △미국 45개 과정(824명, 25개 기관) △일본 44개 과정(888명, 16개 기관) △호주 10개 과정(130명, 5개 기관) 등이며, 지역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과정의 약 절반 수준인 65개 과정(1160명, 27개 기관)을 지역에서 선정했다.

선정 결과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에 게시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청년을 모집한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쇼핑몰·흡소핑 농식품 ‘원산지’ 이달 집중단속

정부가 흡소핑 등 통신매체를 통해 판매되는 농식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함에 따라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며 “그 일환으로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2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이 지난 2019년 6.9%에서 2023년 기준 25.0%로 급증했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과 통신판매 쇼핑몰, TV흡소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3715억 투입

보조사업 예산 전년비 42% 늘어나 올해 충전기 14만9000기 보급 방침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목표

정부가 올해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2% 늘어난 3715억 원으로 책정했다. 오는 6월 이 같은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환경부는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 기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30만5309대가 설치됐고, 올해 추가로 14만9000기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올해 공용 완속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 1340억 원을, 급속 충전시설과 완속 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2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는 7kW급 완속 충전기 11만 기와 100kW급 급속 충전기 1만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 충전기 1기당 지원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kW)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최대 500만 원 지원하며, 공용 급속 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용량에 따라 설치비용의 50% 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뉴스시스

내에서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아파트,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또는 운영주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6월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다만 1340억 원 중 800억 원을 차지하는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 통신기술기준 등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된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을 통해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는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신청 서식에 따라 설치하고자 하는 충전기 설치 수량

을 표기하고 원하는 사업수행기관을 1~3지망까지 선택하면 된다.

설치 지원 희망자는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도 제출해야 하며,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또는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설치 희망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 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한편 총 237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급속 충전시설 설치에 2175억 원을, 완속 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전기차 보급계획과 연계해 충전 기반 시설 구축 수요가 있는 지자체 또는 민간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구비서류를 공모 기간 동안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 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현황, 충전 수요 및 특성 등의 정보를 통합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2024.04.26(금)

13:00~17:00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

-연사-



Robert Coppes
University Medical
Center Groningen



Ryuichi Okamoto
Tokyo Medical and
Dental University
(TMDU)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임승원
현 애니젠 고문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포럼
- **일시:** 2024년 4월26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1층)
- **등록:** <https://onoffmix.com/event/293926> 선착순, 사전접수만 입장 가능
- **문의:** 오가노이드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주최: metr경제

후원: 충청북도
CHUNGCHONGBUK-DO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2:30~13:30	사전등록 (13:00~13:30VP Tea타임)
개회 및 축사	13:30~14:00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섹션1	14:00~15:4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연구 및 현황 강연1: Robert Coppes Prof 강연2: Ryuichi Okamoto Prof 강연3: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 강연4: 손미영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
브레이크타임	15:40~15:55	커피 브레이크 및 자유네트워킹
섹션2	15:55~17:00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과 전망 임승원 전 한국IR협회의 상근부회장 등 정부 관계 부처 및 금융기관 전문가
폐회	17:00	

울산시, 공무원 현장파견으로 신공장 인허가 기간 단축

삼성SDI 공장건립 행정지원 전담 공무원, 직접 허가업무대행 시작한 지 반년만에 건축허가 완료

울산시의 친기업 행정이 기업의 신속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현장파견 기업투자 지원정책'이 현대차 전기차 신공장 허가업무를 2년 이상 단축한 데 이어 삼성에스디아이(SDI)의 2차전지 투자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양극재 및 신형 배터리 공장 건립 행정지원에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전담 공무원 1명을 파견했다.

삼성에스디아이(SDI)에 파견된 전담 공무원은 현장에 매일 출근하면서 투자사업 수립 단계부터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포괄적 조언(컨설팅)과 업



울산시청.

/울산시

무지원은 물론 최적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후 직접 허가업무를 대행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최대한 활용해 삼성에스디아이(SDI)가 수십년 동안 매입하지 못해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던 공장 내 무연고 사유지를 4개월 만에 수용재결 완료했다.

이밖에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공장

건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준공 전 토지사용' 등 기업투자에 최적화된 맞춤형 현장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같은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 현장파견 행정지원 시작 약 6개월 만인 올해 1월 4일 5000억 규모 양극재 소재공장 건축허가가 완료돼 3월 중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 3공구 삼성에스디아이(SDI) 울산공장 내에

착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에스디아이(SDI)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배터리 공장도 울산공장 내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연고 사유지보상, 산업단지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 삼성에스디아이(SDI) 울산공장의 경우는 현대차 신공장 사례보다 더욱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3년 이상 소요될 허가 기간을 2년 6개월 정도 단축한 것이라고 울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를 가져다줄 삼성에스디아이(SDI)의 2차전지 투자사업이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성과가 나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신형 배터리 공장 등 추가 투자에도 신속한 허가를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급

여주시(시장 정기명)가 초등학교 신입생 1900여 명에게 입학지원금 인당 1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급한다.

입학일 4월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입학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지원금은 1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 지급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해 10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3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5월부터 9월까지는 여주시 평생교육과에 방문해야 한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8개사가 수출상담회 참가해 김·유자주스 등 37만달러 수출협약 을 맺으며 현지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사 초청 설명회로 수출확대 발판도 마련했다. /전남도

싱가포르·인니서 K-농수산물 인기 전남도, 수출상담회서 37만달러 성과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과 달성 김, 스넥, 양식용 펌프 업체 등 참여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광주전남지원단(코트라·KOTRA)과 함께 지난 1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서 농수산물 수출상담회로 인기몰이를 해 37만 달러의 수출협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상담회에는 김, 스넥, 유자차, 천일염 등 농수산물 7개 사, 양식용 펌프 1개 사가 참가해 총 70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상담회에서 완도망영어조합

법인은 싱가포르에 김 7만 달러와 인도네시아에 해조류 10만 달러 상당의 수출업무협약을 했다. 맑고맑고따뜻한협동조합에선 인도네시아에 유자주스 1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주)바다명가는 인도네시아에 김 1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또 (주)아라움은 크리스피 오징어 스낵류, 케이슬트(주)는 천일염 및 기능성 소금, 레인보우팜(주)은 쌀 가공식품, (주)해미푸드는 해조류 국수면, (주)하백은 수중모터 펌프를 수출해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김해시, 쌀 적정생산 위한 3개 사업 추진

올해 벼 재배면적 89ha 감축 목표

김해시는 올해 쌀 적정생산을 위해 3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벼 재배면적 89ha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사업을 한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기존 논활용 직불제를 하계까지 확대 개편한 것으로, 논으로 활용되는 농지에서 콩, 조 사료 등 전략작물로 지정한 품목을 재

배할 경우 ha당 50만원에서 최대 480만원을 지급한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 ha당 50~150만원을 지급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은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 공공비축미를 ha당 150~300포대(두류 150, 일반작물·하계조 사료·휴경 300) 추가 배정한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PM-대중교통 환승할인 운영

전국 최초 시범운영

부산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PM)와 대중교통 수단을 환승해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부여되는 'PM-대중교통 환승 할인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의 하나로, 공유 PM을 안전하고 편리한 퍼스트라스트마일(first-last mile) 접근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다.

또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유 PM의 장점인 경제성·신속성·친환경성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PM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은 물론 근거리 이동 수단 활성화에 획기적인 반향을 일으

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11월 PM 업체, 교통통합 결제 시스템 운영사와 함께 '공유 PM 이용 안전 개선 및 안전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PM의 활성화와 안전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PM-대중교통 환승 할인사업'은 교통카드를 한 번 등록해 두면, PM 이용 후 버스나 도시철도 탈 때 교통카드를 찍기만 하면 즉시 요금이 할인된다.

그동안 공유 PM 이용자는 업체별 앱을 설치한 뒤 매번 QR 코드 스캔 등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 사업은 한 번의 교통카드 등록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주시, 다자녀 가정 지원 대폭 확대

사진전·희망카드 발급 등 혜택 제공

경주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 ▲다둥이 가정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가족진료비 지원 ▲각종 공과금 감면·할인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면제 등에 주안점을 두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매년 두 자녀 이상 20가구를 대상으로 '다둥이 가정의 행복한 추억 만들기 사진전'을 개최한다.

두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8세 이하 가정에게는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발급해 다채로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막내자녀가 12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연중 가족전원 진료비 및 약제비 5만원, 1회 지원한다. 감면·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자동차 1대 취득세 최대 140만원, 최초 1개의 주택 취득세(19세 미만) 100%, 상수도 사용료 월 최대 5000원이 각각 감면된다.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은 월 30%(최대 1만6000원) 전기요금, 계절별 월 2470원~1만8000원 도시가스요금 각각 할인된다.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아이누리장난감 안화비와 평생학습강좌 수강료도 각각 면제된다.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인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도 제공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정읍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만명 달성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See'가 구독자 1만명을 달성(3월 5일 기준)하며 시청소통의 새로운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이학수 시장은 뉴미디어팀을 신설해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강화해왔다. 특히,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민 공감형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 유튜브를 비롯한 SNS 운영에 주력해왔다.

'정읍See'에서는 발 빠르게 시청 소식을 전하는 숏폼 영상을 비롯해 현장감 있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구독자 1만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읍(전북)=양수영 기자

통영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우수'

통영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총 697개 기관 중 4년 연속 우수(최고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5개 영역(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 16개 평가지표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실태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경산시

파크골프장 3개소 이름 선정

경산시는 올해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 3개소의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쉽게 각인되고 독창적이면서 참신한 명칭을 찾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한 결과 약 4천 건이 접수됐다.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심사를 거쳐 결과 하양물빛파크골프장(하양읍 대조리), 진량물빛파크골프장(대구대학교 내), 남천물빛파크골프장(옥곡동)으로 선정됐다. /경산(경북)=이상호 기자

알리, 신선식품 개시... 쿠팡·컬리 등 '초긴장'

국내 브랜드 전용관 'K-베뉴'서 입점가 판매하는 '오픈마켓 방식' 제품 대부분 사흘 이내 무료배송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신선식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가운데 국내 이커머스업체가 긴장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국내 브랜드 상품 전용관인 '케이베뉴'(K-베뉴)를 통해 과일과 채소, 수산물 판매에 들어갔다. 입점 판매자가 직접 상품 정보를 올리고, 알리가 배송을 담당하는 오픈마켓 방식이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리테일



알리익스프레스 광고. /알리익스프레스

분야의 신선식품 상품기획자(MD)를 구한다는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온라인과 커머스 등 소매유통 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이다. 원활한 케이베뉴 활동을 위해 신선식품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베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해 10월 선보인 한국 상품 전문 채널이다. 케이베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국에서 직접 무료 배송된다. 배송 기간은 대부분 사흘 이내다.

현재 케이베뉴에는 일상소비재(FMCG)부터 뷰티, 가구, 스포츠, 가공식품 카테고리에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애경산업,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한국피앤지, 참존, 이고진, 스피드랙 등이 입점했다. 동원참치를 만드는 동원F&B도 올해 1분기 합류할 예정이다. 대상, 삼양식품, 풀무원 등도 입점을 검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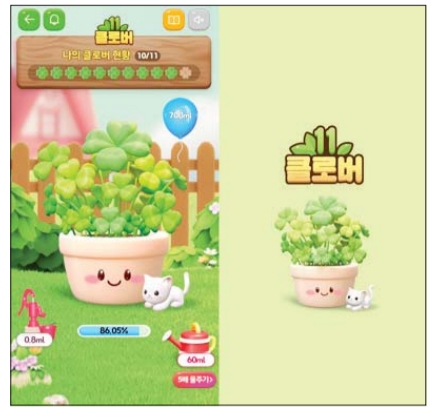
케이베뉴는 아직 초기 단계로 중소 판매자가 한정된 종류 상품을 판매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초저가 시장의 자리매김을 위해 속력을 내고 있다. 이에

다양한 상품과 판매자들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각에선 알리의 이같은 전략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쿠팡, 컬리 등의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알리가 케이베뉴를 안정화 시키고 나면 국내에서 충성 고객 모집을 위해 또 다른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이는 초저가, 퀵배송을 앞세우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업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 현재는 신선식품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알리 측은 신선식품 판매와 관련해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앞으로 취급 품목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11번가 보상게임 '11클로버' 누적접속 1억회 돌파

'게임피피케이션'에 기반한 11번가의 고객 특인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게임피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메커니즘, 사고방식과 같은 게임의 요소를 접목시키는 것을 뜻한다.

11번가는 쇼핑과 게임을 접목한 앱테크형 게임 이벤트 '11클로버'의 누적 접속횟수가 최근 1억회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11클로버'는 11번가 내 다양한 미션을 통해 얻은 '물'로 클로버 11개를 키우면 고객이 선택한 보상을 주는 게임 이벤트로, 지난해 11월 오픈 직후부터 뜨거운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간단한 게임을 통해 고품가 속 생필품(6년근 홍삼정, 명란김, 타올 등)을 얻는 재미와 실용성이 부각되며, 현재까지 73만명이 넘는 고객들이 '11클로버'에 참여했다.

11번가는 '11클로버'를 방문한 고객들이 바로 떠나지 않고 11번가에 머물며 주요 전문관과 상품으로 이동하면서 11번가 서비스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고객들이 11번가에 머무르는 시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통계분석 전문기업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같은 기간 11번가 모바일 앱의 1인당 월 평균 이용시간(분)은 직전년도 동기 대비 75%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빛나 기자

롯데리조트속초 이영현 x 이현우 콘서트 웨이브스 오브 소울 판매

롯데리조트속초가 '이영현 x 이현우 더블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웨이브스 오브 소울' 패키지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이영현 x 이현우의 더블 콘서트는 롯데리조트속초에서 열리는 첫 콘서트이자, 두 가수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공연이다. 콘서트는 오는 23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그랜드볼룸에서 약 120분간 진행된다.

패키지는 콘서트와 함께 리조트의 다양한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호텔형 객실 1박, 무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콘서트를 감상할 수 있는 R석 티켓, 전 좌석 오션뷰와 오픈형 라이브러리, 사우나 및 찜질방 이용권, 워터파크 50% 할인권 등의 혜택으로 구성됐다. 콘서트 티켓은 최대 4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혜택은 모두 인당 제공된다.

패키지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3월 22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가격은 선택하는 객실 및 인원수에 따라 상이하다. /최빛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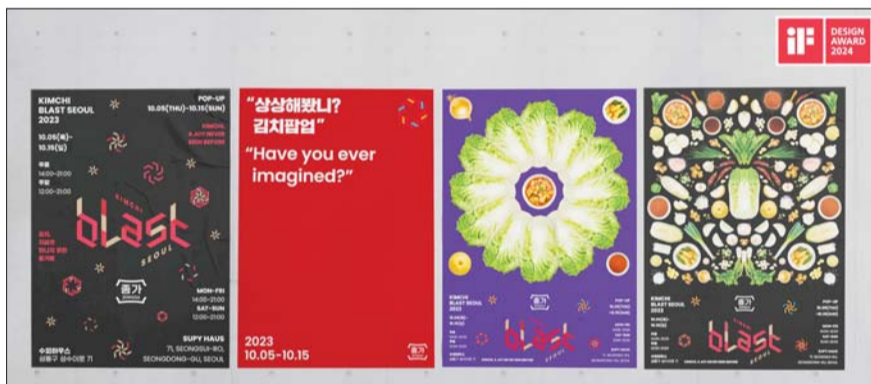
대상 '김치 팝업 캠페인', iF 디자인어워드 2관왕 쾌거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 진행 '차별화 김치 콘텐츠' 높이 평가 캠페인 11일간 누적방문객 1만명

대상(주) 종가는 지난해 진행한 김치 팝업 캠페인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4'의 'Brand Identity', 'Commercial Exhibition' 2개 부문에서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5일 밝혔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장 공신력을 인정받는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는 전 세계 72개국에서 1만1000여개의 출품작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상(주) 종가가 선보인 대한민국 최초 김치 팝업 캠페인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은 '김치, 지금껏 만나지 못한



대상(주) 종가의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4' 2관왕을 수상했다. /대상

즐거움'을 테마로 진행됐다. 김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MZ 세대는 물론, 김치의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정관념을 벗어난 차별화된 김치 콘텐츠를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의미의 '해체주의'를 콘셉트로 정

형화된 김치의 이미지가 아닌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를 반영한 색다른 형태로 김치를 재해석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팝업 공간에서는 종가의 자산이자 김치의 본질을 상징하는 육각형의 브랜드 패턴을 다양한 모양으로 해체, 재구성해 제품부터 포장, 공간을 넘나들며 다각각적 경험을 제공했다.

또 팝업 미식존에서 선보인 '종가 백김치 황금타르트', '종가 배추&열무김치 아란치니', '종가 김치 케이크' 등 종가 김치를 활용해 만든 특별한 메뉴 역시 새로운 김치의 맛을 선보인 점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대상(주)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성수동 수피하우스에서 운영한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은 팝업 캠페인 기간 내내 대기 예약만 매일 200명이 넘어서는 등 연일 '오픈런'이 이어지며 김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김치는 곧 종가'라는 글로벌 대표 브랜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실제로 가족 단위 고객부터 종가 멤버서더 호시의 팬들, 외국인 등 다양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11일간 누적 방문객 수는 무려 약 1만명에 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日 시부야에 '큐텐 라이브 스튜디오' 오픈 컬리, 테크 6개분야 경력직 대규모 채용

이베이재팬, 상주 스태프 등 배치

온라인 오픈마켓 '큐텐재팬'을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 이베이재팬이 지난달 말 도쿄 시부야에 라이브 커머스 전용 스튜디오 '큐텐 라이브 스튜디오'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계 190개 이상 국가 및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이베이 그룹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 상설 스튜디오다.

전체 2층 규모로, 1층에는 사용자 등록을 위한 '리셉션', 촬영 및 방송이 가능한 '패션 스튜디오', 제품 촬영 전용 공간 '프로덕션 스페이스'가 있다. 2층은 라이브 방송 및 촬영을 위한 '미니 스튜디오', 브랜드 및 제품 전시 공간 '팝업 스페이스', 촬영 전 메이크업 및 드레스업이 가능한 '메이크업 룸'으로 구성됐다. 전용 장비를 갖추고, 카메라 조작 등 상주 스태프를 배치해 매일 높은 퀄리티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

한 체제를 갖췄다.

큐텐재팬 입점 판매자들은 사전 신청을 통해 방송 일정을 잡고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신 방송 장비를 활용해 제품 촬영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큐텐재팬 멤버서더로 임명된 인플루언서에게도 장소를 제공한다. 2층 팝업 스페이스에서는 큐텐재팬 판매자 제품 또는 신규 브랜드, 신제품 등을 전시해 고객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베이재팬은 큐텐재팬 주 고객층인 일본 MZ세대 중심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쇼핑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며 시장이 커지고 있어 상설 스튜디오를 열었다.

실제로 이베이재팬은 2021년부터 주 2~3회씩 약 270여회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 1회 방송 최대 매출 10억원, 최대 조회수 120만, 최대 좋아요 수 700만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빛나 기자

유관경력 5년 이상 누구나 지원

컬리가 기술을 동력 삼아 또 한 번 도약을 준비한다.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테크 분야 전 직군에 대한 대규모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5일 밝혔다.

컬리의 테크 부분 대규모 채용은 지난 2022년 봄 세 자리 수 채용 이후 2년 만이다.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AI)·데이터·개발·기획·디자인 등 총 6개 분야이며, 총 예상 채용 인력은 두 자리 수다. 특히 이번에는 초개인화 및 자동화를 위한 AI 관련 모집이 새롭게 추가됐다. 모든 직군은 유관 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오는 1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채용의 목적은 제품 경험의 진화와 확장(scale-up)이다. 컬리 서비스 본질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최상의 상태로 고객에게 배송하는 데 있다. 지난 9년간 컬리는 본질에 집중한다는 컬

리만의 철학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앞으로는 상품 탐색부터 주문, 구매 후 경험까지 고객이 컬리와 만나는 모든 과정을 기술을 통해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서류를 접수하면 곧바로 평가가 진행되며, 영업일 기준 1주 내에 이메일로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자는 코딩 테스트와 과제 전형, 인터뷰 순으로 전형 절차를 밟는다.

컬리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과감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기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커머스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지금 컬리는 가장 적합한 기회이자 성장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6兆 시장 잡아라”... K-특신, 美 진출 경쟁

(2031년)

美 특신 시장, 2배 가량 성장 예상
휴젤, 美 FDA서 품목허가 획득
대응계약, 매출 80% 수출 차지
메디톡스, 품목허가 재신청 예정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들이 해외 시장을 겨냥해 세계 최대 보툴리눔 시장인 미국 시장 진입에 나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토탈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은 지난 2월 29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 50유닛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휴젤의 '레티보'는 중국과 유럽에 이어 미국에 진출한다. 휴젤은 글로벌 3대 특신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한 국내 최초 및 유일한 기업이자 전 세계 세 번째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휴젤이 이번에 진출한 미국은 전 세계 보툴리눔 독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 특신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3조 2500억원에서 오는 2031년 6조 36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시장이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휴젤의 보툴리눔 독신 제제 '레티보' /휴젤

휴젤은 올해 중순 제품 출시를 목표로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휴젤은 앞서 지난 2023년 캐나다에서도 '레티보'를 선보여 북미 시장 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캐나다 보툴리눔 독신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1800억원으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휴젤은 해외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휴젤의 행보는 세 번의 도전에 따른 성과다. 휴젤은 지난 2021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처음으로 품목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FDA로부터 공장 설비

와 일부 데이터·문헌에 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 같은 해 10월 재도전에 나섰지만 2023년 4월 CRL를 한 번 더 수령하는 난관을 겪었다.

휴젤은 2023년 8월 FDA에 다시 품목허가를 신청해 미국 시장의 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 휴젤은 “이번 허가를 통해 휴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조건을 요하는 FDA로부터 제품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응계약의 프리미엄 특신 '나보타'는 2019년 국산 보툴리눔 독신 제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현재 나보타는 글로벌 미용 시장에서 매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동시에 치료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응계약에 따르면 나보타는 지난 2023년 147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이 중 약 80%를 수출을 통해 판매고를 올렸다.

또 대응계약은 삼화성·만성 편두통, 경부근긴장이상, 위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나보타의 치료 적응증 범위를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메디톡스는 미국 특신 시장 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지난 2월 24일

(현지시간) 미국 FDA는 메디톡스의 비동물성 액상형 보툴리눔독신 제제 'MT10109L'에 대한 품목허가를 거절했다. FDA의 거절 사유는 'MT10109L'과 관련된 특정 검증 시험 보고서 미비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톡스는 해당 사항을 보완해 FDA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며 “미국 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이뤄내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외 시장 다각화를 위해 일본 시장 진입도 초기 단계에서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가 자체 개발한 MT10109L은 세계 최초 액상형 독신 제제다. 특히 균주 배양, 원액 제조 등 전체 제조 과정에서 동물유래성분 사용을 배제하고 사람혈청알부민을 부형제로 사용하지 않아 동물 유래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K특신은 국내 경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시점에 있다”며 “제품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들은 다양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강스탬바이오텍 위탁개발생산 역량 입증

강스탬바이오텍이 우수한 GMP 시설과 생산 기술, 품질관리 역량 등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스탬바이오텍은 최근 의약품 위탁 개발생산(CDMO) 사업 위탁사인 클립스비엔씨가 윤부줄기세포치료제 임상 2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강스탬바이오텍의 CDMO 사업 중 첫 번째 IND 승인 사례다.

이러한 성과는 강스탬바이오텍이 축적해 온 줄기세포 연구개발, 임상시험 경험, 고도화된 품질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강스탬바이오텍은 GMP 문서 제정, 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 위탁사의 신속한 임상 시험 진입에 기여했다.

위탁사의 윤부줄기세포치료제는 유전적 또는 외상, 감염, 수술적 손상, 콘택트 렌즈 착용 합병증 등의 후천적 요인으로 윤부에 광범위한 손상이 생기는 난치성 질환인 윤부줄기세포 결핍증 치료를 목표로 한다. 윤부는 각막과 환자 경계에 위치한 조직이다. /이청하 기자

유한건강생활 여성 질 유산균 시장 선도

유한건강생활의 헬스&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오리진 이너플로라'가 여성 질 유산균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한건강생활은 '뉴오리진 이너플로라' 브랜드 출시 5주년을 맞이해 국내 최초 그리고 1위의 성과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뉴오리진 이너플로라'는 여성 질 유산균으로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가 주원료다. 아울러 국내 최초 이산화티타늄 무첨가 제품으로 청소년부터 임산부까지 여자라면 누구나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GC녹십자 알레르기 치료제 부작용 줄여

GC녹십자가 알레르기 치료제로 줄임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빠른 일반의 약품을 선보인다.

GC녹십자가 '알러젯 연질캡슐'을 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알러젯 연질캡슐'은 펙소페나딘염산염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3세대 항히스타민제다.

항히스타민제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성 반응에 관여하는 히스타민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콧물, 재채기, 볼맹등에도 사용된다. 항히스타민제의 대표 부작용은 졸음, 진정, 피로감, 집중장애 등이다.

이와 관련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약효와 부작용을 개선했다. 특히 펙소페나딘염산염은 약물 지속 시간이 길고 졸음 부작용은 낮은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알러젯 연질캡슐'은 연질 캡슐 형태로 정제 대비 생체 이용률도 높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꽃가루, 집먼지 등에 의한 코의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청하 기자

국내 ODM 시장, 해외시장 개척 등에 잇따른 호실적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

한국콜마, 지난해 연 매출 2兆 돌파
코스맥스, 1.8조 달성... 2조클럽 눈앞
씨앤씨인터, 지난 4분기 최대 실적

올해 국내 뷰티 시장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5일 국내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의 양대 산맥인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호실적을 달성했다.

한국콜마는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연간 매출 2조원을 돌파했다. 한국콜마의 2023년 매출액은 2022년 대비 15.53% 증가한 2조 1554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65억 88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86.39% 증가한 규모다. 당기순이익은 26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코스맥스도 '2조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코스맥스의 경우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8103억원으로 2022년 대비 13.1% 늘었다. 영업이익은 2022년 대비 139% 증가한 1270억원



씨앤씨인터내셔널은 메이크업 색조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씨앤씨인터내셔널

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색조 화장품 ODM 전문 기업 씨앤씨인터내셔널이 지난 2023년 4분기 매출액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씨앤씨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31억원으로 2022년 4분기 대비 무려 64.2%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2% 증

가해 9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립 제품의 매출이 415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메이크업 제품의 매출은 9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2023년 4분기 기준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유럽에서 가장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씨앤씨인터내셔널은 유럽 시장에서 147.5%의 매출증가율과 함께 54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셀트리온, 자사주 750억 규모 매입 결정

자사주 취득, 장내매수 통해 가능
주총서 확정 후 배당 진행도 예정

셀트리온이 주가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실전에 나섰다.

셀트리온은 올해 첫 번째 자사주 매입

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매입할 자사주는 총 42만 5895주로 취득 예정 금액으로는 약 750억원 규모다. 자사주 취득은 6일부터 장내매수를 통해 진행된다.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잇따른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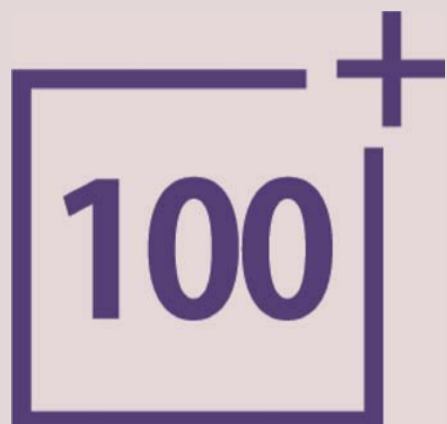
주요국 허가 신청과 신약 출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이 구체화되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지속해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것이 셀트리온 측의 설명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3년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다. 또 통합 셀트리온 출범 후 올해 1월에는 약 총 230만 9813주, 약 4955억원 규모

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외에도 꾸준한 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3년 말 1주당 500원씩 총 1037억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한 상태로 오는 2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최종 확정하고 배당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1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2024.03.20(수)

14:00~17:10

서울 명동은행회관2층국제회의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칼리지 수료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77>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 행사개요

-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2024년 3월 20일(수) 오후 14:00 ~ 17:1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등 록: <https://www.metroseoul.co.kr>(메트로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 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13:30~14:00 VIP Tea타임)
축사	14:00~14: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개회사	14:00~14:20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1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
강연1	15:10~15:50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강연2	15:50~16:3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부동산전망과 투자전략
강연3	16:30~17:10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외연금센터 본부장 : 고령화시대, 재테크 전략
폐회	17:10	

2024 인터배터리 어워즈

LG엔솔, '종합 최고 혁신상' 수상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처음 개최되는 '2024 인터배터리 어워즈'에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시상식에서 '미드니켈(Mid-Ni) Pure NCM'으로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다고 5일 밝혔다.

종합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LG에너지솔루션의 Pure NCM은 고전압에서 구동이 가능한 미드니켈 소재를 발굴하고 적용한 노트북 배터리로 단결정 양극 소재를 사용하여 고전압 환경에서 전극의 장기 내구성을 확보한 기술이 높게 평가됐다. /차현정 기자



BNK부산은행, 부산문화재단 발전기금 전달

BNK부산은행은 지난 4일 부산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문정원 BNK부산은행 동부·울산영업본부장(오른쪽 부터), 손대진 BNK부산은행 고객기획본부장, 이미연 부산문화재단 대표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NK부산은행



인천국제공항-뮌헨공항, 교육협력 확대 MOU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공항 교육원에서 뮌헨공항과 '교육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왼쪽)과 요스트 램머스 뮌헨공항 사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전기협회, 산업단지 에너지 효율화 팔 걷어

대한전기협회는 5일 서울 송파구 소재 전기회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산업단지에너지저소비·고효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창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왼쪽부터), 김기원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한상규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민동욱 글로벌선도기업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전기협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스티븐 해링턴: 스테이 멜로' 기획전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2024년 상반기 첫 전시로 현대미술 기획전 '스티븐 해링턴: 스테이 멜로'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스티븐 해링턴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스티븐 해링턴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풍경과 문화를 표현한 작품과 세계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오는 8일 작가가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아티스트 토크'도 선보인다. /이형하 기자 mlee236@

韓 콘텐츠 이끄는 이미경... '움직이는 비저너리' 선정

(CJ그룹 부회장)

기생충·브로커 등 다양한 작품 총괄 美 매거진 '할리우드 이슈' 선정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이 미국 할리우드를 움직이는 비저너리(visionary) 미래를 읽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선정됐다.

CJ그룹은 이 부회장이 미국 유력 연예 매거진 '베니티 페어(Vanity Fair)'의 특별판 '2024 할리우드 이슈(2024 Hollywood Issue)'에 이름을 올렸다고 5일 밝혔다.

베니티 페어는 1995년부터 할리우드 배우, 감독 등 매년 최고의 크리에이터를 뽑아 이들을 조명하는 연례 특집호 '할리우드 이슈'를 발간하고 있다.

발간 30주년을 맞는 이번 특집호는 할리우드의 미래를 주도하고 변화를 이끄는 인물들을 선정했다. NBC유니버설 스튜디오 회장 도나



'베니티 페어' 특별판 '2024 할리우드 이슈' 이미경 부회장 화보 /Vanity Fair

랭글리(Donna Langley), 미국 대형 미디어 그룹 와셔맨 회장 케이스 와셔맨(Casey Wasserman) 등 업계 거물 기업가들을 비롯해 전바하마 대사이자 넷플릭스 CEO 테드

서랜드스 배우자로 유명한 프로듀서 니콜 애반트(Nicole Avant),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 위원장 프란 드레셔(Fran Drescher),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2회 수상자 배우 제인 폰다(Jane Fonda) 등이 이 부회장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베니티 페어는 이 부회장을 '대모(godmother)'라 칭하며 "이 부회장은 '기생충'부터 '설국열차'까지 할리우드를 강타한 한류의 비밀 병기다. 더 풍요롭고 다양한 세상을 위해 문화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이 부회장의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는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후보에 오른 쉐린 송 감독의 아름다운 영화 '패스트라이브즈'의 총괄프로듀서로서 역량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영화 '기생

충', '헤어질 결심', '브로커', '패스트라이브즈' 등 다양한 작품의 총괄프로듀서를 맡아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할리우드, 문화예술계, 교육계 등과 협력하며, 크리에이터들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한류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 국제 에미상 공로상,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필러상 등을 수상했으며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유력 매체가 선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도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LG, 슈리칭 '구겐하임 어워드' 선정... "예술·기술 만남 지원"

(넷아트 전문가)

10만달러 상금·트로피 수여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

LG가 기술로 혁신적인 예술가들 새로 발굴하며 현대미술 지원을 이어간다.

LG는 'LG 구겐하임 어워드'에 슈리칭(사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미국 구겐하임 미술관과 매년 혁신 예술가를 펼친 작품을 발굴하는 행사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수상자에 10만달러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하고 다양한 대중 활동을 함께할 예정이다.

슈리칭은 미국과 유럽을 주무대로 디지털 아트와 영화 등 작품활동



을 펼쳤으며, 특히 VR과 코딩 등 신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이어왔다. 인터넷 기술이 대동한 1990년대에 '넷 아트' 분야에서 특히 이름이 높다. 디지털 사회와 사회적 문제를 대담하게 다루고 일찌감치 블록체인 등 미래 사회를 예견하기도 했다. 구겐하임 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 등 세계적인 미술관이 대표작 8점을 소장하고 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국제 심사단 5명을 구성하고 전세계에서 추천 받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4개월간 심사해 슈리칭을 최종 선정했다. 특정한 형

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실험적 예술을 펼치며 디지털 시대 스토리텔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다고 호평하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치는 슈리칭의 끊임 없는 도전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슈리칭은 "예술과 기술의 만남을 지원하는 'LG 구겐하임 어워드'는 현대미술계에 매우 큰 의미"라며, "이 명예로운 상을 받아 앞으로의 작품 세계를 펼쳐 나가는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나오미 백위스(Naomi Beckwith) 구겐하임 수석 큐레이터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대표해 "현대미술계 선구자인 슈리칭은 디지털과 아날

로그의 경계를 아우르는 탐구를 이어왔다"며 "LG와 함께 슈리칭의 활동을 후원하는데 큰 기쁨을 느낀다"고 밝혔다.

LG 브랜드담당 박설희 수석전문위원은 "실험적인 예술로 동시대인들에게 대담한 질문을 제시해온 슈리칭이 'LG 구겐하임 어워드'의 두 번째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제 심사단이 주목한 선구자 정신과 부단한 실험정신이 LG가 이상을 통해 글로벌 고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라고 전했다.

한편 LG는 내달 2일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LG 구겐하임 어워드'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 세번째부터),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타니구치 SBI저축은행부사장 및 관계자들이 SBI저축은행 금융센터 개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여의도·강남 금융센터 개소

증권·자산운용사 등 협업 모색

SBI저축은행이 여의도와 강남 지점을 확장했다.

SBI저축은행은 여의도 금융센터와 강남 금융센터를 개점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여의도지점과 강남지점을 금융센터로 확장했다. 확장 기념행사에는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융센터 두 곳을 통해 ▲개인 ▲기업 ▲IB 금융 등 지역 거점의 여신 영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상품을 개발해 기존 수신 위주의 영업 활동을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여의도의 특성을 이용해 인근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사와 협업을 단행할 계획이다. 이어 강남에서는 개인 및 기업 관련 여신상품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한화그룹 "사이언스챌린지' 도전하세요"

내달 9일까지 온라인 참가 접수

한화그룹이 과학 분야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한화그룹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갈 과학 꿈나무 육성 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Science Challenge) 2024'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한화 사이언스챌린지는 창의적인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화

그룹이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있는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이다.

올해의 슬로건은 'Saving the Earth :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과학적 아이디어'로,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 안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겨룬다.

참가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은 내달 9일까지 한화사이언스챌린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가 접수를 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hyeon@

인사·부음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장 정병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조용민 ◇과장급 승진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발작물개발과장 정지용

◆여성가족부 ◇국장급 승진 ▲청소년정책관 최문선

▲김윤기씨 별세, 김태호(경기신문 광주·하남 담당 부장)씨 부친상 = 4일, 가평농협장례문화센터 4호실, 발인 7일 오전 10시, 031-581-4442

Very Special
FRESH BERRY



논산딸기주스
 Nonsan
 Strawberry Juice
6,900

논산딸기 베리라떼
 Nonsan Strawberry
 Berry Latte
6,900

논산딸기
 바나나스노우
 Nonsan Strawberry
 Banana Snow
6,900



척사대회가 있던 날



이규성의
전원예 산다

겨울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새해 첫 마을 행사를 치렀다. 정월대보름 날 마을 척사대회(웃놀이)다. 회관 마당에 웃놀이 판을 위한 돛자리 몇개가 펼쳐지고, 한켠에선 커다란 가마솥도 내걸려 그런대로 잔치 분위기가 물씬 했다. 솔에선 소머리를 삶는 냄새가 마을 전체로 퍼졌다. 어느덧 마을사람들이 모이고, 막걸리잔이 오가고, 웃놀이판이 열리면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가득 했다. 척사대회는 이사오던 이십수년전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놀이판이 무리악을 즈음 어떤 이들이 끼어들었다. 우리 지역구의 정치인이다. 이번 총선에 나갈, 각 당의 후보들이 찾아왔다. 어떤 정치인은 조용히 인사만 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정치인은 괜시리 주민들을 모아 연설을 하고 싶어하는 정치인도 있고, 어떤 정치인은 막걸리판에 끼여 자기도 한잔 걸치며 특별한 인상을 남기려 애썼다. 그리고는 다들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노라는 다짐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이 지켜질거라고 믿는 이는 없다. 그래서 올해 척사대회는 여느 해와 다르게 방문객이 많고 어수선했다. 하지만 옛날처럼 선물이나 돈봉투를 나눠주고 가는 후보가 없는게 다행이다. 실제 외환위기 이전 한 정당의 당원이었던 이장이 나서서 봉투를 돌렸다. 그것도 사람을 골라서. 당시 집권당을 지지해달라는 이장과 심하게 다투었다. '더러운 대표행위를 하지마라'고. 다툼 이후 이장과는 서먹해졌다. 내가 이장과 다투었다는 소문이 돌고 봉투를 거부한 이들과는 친해지고 봉투를 받아든 이들과는 멀어진 정도랄까. 민주화를 표방한 대통령이 오고 돈봉투는 없어졌다. 또 정치인들이 제공하는 막걸리판도, 선물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회의원, 군수, 시장 등 대부분 뇌물로 감옥가고 현 국회의원도 입건돼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판이다. 이것이 수도권 한 지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라면 믿을까. 우리마을에는 두가지 규제가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족쇄는 이 지역의 개발을 막고 있는 장애로 작용, 해제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남아 있다. 이곳의 지천은 곤지암천-경안천을 지나 팔당과 연결돼 서울의 물 공급 원천이 되고 있다. 소머리국밥으로 유명한 곤지암은 황성처럼 한우 스토리를 지니고 있으나 대규모 축사를 짓지 못한다. 또한 분원리 이전의 왕실 백자 가마터가 남아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고 있다. 물론 이런 규제는숙원사항이지만 주민들이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를 본적은 없다. 그런데도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단골로 공약하고 아무 것도 풀지 못하는, 아주 묘한 평행선을 유지한다. 우리마을에는 3·1운동 당시 '해방 선언문' 작성에 참여한 민족지도자 33인 중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다 서거했다. 신익희 선생과 더불어 우리 지역이 자랑하는 위인이지만 두분 모두 별다른 기념사업 하나 없다. 그들의 후손들이 이곳에 여전히 뿌리내리고 살지만 큰 활동을 하지 않는다. 독립운동을 했다고, 야당한다는 박해에 넌더리가 난다며. 그중에는 학교에 가서도 혼난 적 있다고. 그래서 이 마을사람들은 여전히 독립운동가를 묻고, 어느 한때의 척사대회를 즐겨오고 있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34억 세금 드는 일자리, 밀실에서 뽑지 말길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진 우상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이미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공천 과정에서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은 우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 체제의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 의원은 21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후보 신청자들의 예비 경선을 전당원 투표로 하고, 그 순위 확정엔 중앙위원들의 투표로 결정했는데, 22대 총선에선 전당원 투표와 중앙위원 투표를 하지 않고 전략공천 관리위원회의 심사로 진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의사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출의 규칙을 바꿀 때는 당원들에게 사유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총선에서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 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우 의원의 입장이 나온 다음날(5일) 김성한 전략공천위 비례대표 후보 추천분과위원장이 이를 해명하는 브리핑을 열었다. 핵심 내용은 당헌당규상 60일 전에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올해는 이미 준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 60일 전에 구성돼서 민주당 비례대표 공관위를 꾸리지 못했고,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 논의를 하다보니 시간이 촉박해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은 전략공천위에서 심사와 추천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의원들을

상대적으로 검증받을 기회가 적다. 정치권 경험이 부족한 지역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당원과 중앙위원의 검증을 맡겨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을 것이다. 우 의원의 지적처럼 당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전 당원에게 홍보하고 당원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한 것은 의아하다. 이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전당대회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관리위원의 표 비중을 높였던 것과는 다른 결의 결정이라서 더 의아하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후보자 자질 검증 논란, 밀실 검증 논란으로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타깃이 됐다. 정당의 기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후보에게 들이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pth7285@

오늘의 운세 3월 6일 (음 1월 26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48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이다. 60년생 아재의 이웃이 오늘은 배운덕할 수. 72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84년생 오늘보다 높은 고지를 향해볼 것.
- 소** 37년생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49년생 가족의 위료가 그리운 날. 61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된다. 73년생 강남에서 각정이 해소되고 강북에서 마음이 즐겁다. 85년생 오아발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마라.
- 호랑이** 38년생 웃으며 병 주고 약 주는 시늬가 밍시다. 50년생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날. 62년생 해 오던 일이 큰 성과를 내서 명예가 높아진다. 74년생 머리만 민지 말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좋다. 86년생 아직도 귀중한 시간이 많이 있다.
- 토끼** 39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51년생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 63년생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75년생 부지런하니 늘 기쁨이 공존하여 감사. 87년생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기쁘다는 뜻이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 용** 40년생 기뻐만사성이 가정의 행복을 먼저 챙기자. 52년생 오늘의 주인공이니 무슨 일에도 참여. 64년생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76년생 남의 흉을 감춰주면 오히려 나에게 유리하다. 88년생 몸은 수고로워도 이득은 발생.
- 뱀** 41년생 오로지 참는 것이 오늘의 불운을 이기는 법. 53년생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65년생 흰색 옷을 입어보라 기쁜 소식이 온다. 77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요 보물이다. 89년생 아침부터 산행을 가보라.
- 말** 4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을 헤게 된다. 54년생 집이나 말의 가족을 일깨워 돌아오니 기쁘다. 66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8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보라. 90년생 게으름은 몸을 더욱 수고롭게 만든다.
- 양** 43년생 이익되는 관계만 맺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55년생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나에게도 이익. 67년생 남편이 소중하니 외출보다는 집안일이 우선. 79년생 삶이 고단 할지라도 내일이 있으니 희망을 버리지 마라. 91년생 자랑보다는 겸손을.
- 원숭이** 44년생 오늘 이사하는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56년생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이니 서두르지 마라. 68년생 양다리 걸치다 양쪽을 다 놓친다. 80년생 스승님과 협업이 도움을 주니 좋다. 92년생 남의 단점을 보려 하면 자신이 피곤.
- 닭** 45년생 화를 일삼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로 생명 단축. 57년생 작은 부주의로 큰 계약을 망칠 수 있다. 69년생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81년생 앞지른 물은 담지 못한다. 93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은 법.
- 개** 46년생 좋은 운은 이간질함으로써 달아난다. 58년생 타인의 실수를 보듬어 주어야 할 때. 70년생 가족간에 공과사를 다툼 일이 생긴다. 82년생 아니 뎀 꿀떡에 연기 날 수가. 94년생 누군가 끼어들어도 차를 운전하면 나도 그럴 수 있다.
- 돼지** 47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은 목욕이 최고. 59년생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생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3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95년생 내 이익을 위해 남의 신세를 지려 하지 말 것.

김상회의四季

오행 따라 인간관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사람의 천성이나 특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고 서로 다르기에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도 한다. 오행五行을 보면 그 차이를 보통은 알 수 있다. 사람마다 타고난 오행이 다르니 특성이 서로 다른 게 당연하다. 오행의 구성 따라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진다.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당연한 사실을 알 수 없으니 여지없이 충돌이 생긴다. 직장에서 어떤 상사가 부하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집중 교육을 한다. 부하직원은 상사의 가르침을 받고 달라졌을까. 과연? 상사는 오행 중 화가 많으면 열정이 있고 추진력이 좋으며 성격이 급하다. 자기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므로 충돌이 잦은 편이다. 목이 많은 사주는 누가 시킬 때보다 스스로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낼 때 성과가 좋다. 자기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잘 만들어 내는데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특성이 다른 사람은 서로 살아가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목 사주 부하직원이 화 사주 상사의 방식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사의 가르침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생년월일을 물어서 사주팔자의 오행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다. 직장의 인간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면 조언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게 낫다. 무언가를 꼭 알려주고 싶다면 업무를 통해서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9	5	7	4	2		
		4						
3	7		2					1
9				5	7			
5	3						6	7
			1	2				5
1					6		8	2
						5		
		6	7	8	5	3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1	8	9	8	7	9	6	2
9	7	9	2	1	6	8	8	7
2	8	6	9	8	7	7	9	1
9	6	7	8	2	1	8	9	7
7	9	1	6	7	8	2	8	9
8	2	8	7	9	9	1	7	6
1	7	9	8	6	2	9	7	8
6	9	7	1	9	8	7	2	8
8	8	2	7	7	9	6	1	9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8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학폭 중대처분, 졸업 후 4년간 보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학생부 '학폭 조치사항 관리란' 신설
"가해 기록 체계적으로 관리·보존"

학교폭력 가해학생 기록 보존기간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3월 1일~)
1·2·3호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6·7호	원칙 졸업 후 2년 보존 예외 졸업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
8호	졸업 후 예외없이 2년 보존
9호	영구보존(삭제 불가)

올해 3월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된다.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처분이 대상이다. 퇴학 처분 기록은 이전과 동일하게 영구보존 대상이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관리란'도 새로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3월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보

존 기간을 2년 더 연장토록 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이뤄진다.

학생부 안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란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모든 학폭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관리된다. 지금까지는 학생부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인적·학

적 사항'란에 분산 기재됐었다. 이러한 통합 기록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월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파주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연다

개최지 확정... 사업비 10억 확보

파주시가 인디뮤지션들의 최대축제인 '2024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개최지로 확정됐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은 인디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음악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지난해에는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3일 동안 개최돼 5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바 있다.

파주시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개최지로 확정됐으며,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



파주시청 전경 /뉴스1

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10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국내외 인디뮤지션들과 '인디스팡스'의 공연이 펼쳐지며, 전시 등 관객 참여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AI 스타트업 스쿨 워드 서울' 첫 수업

서울시 AI 분야 초기·예비창업자 육성

서울시는 5일 구글과 함께 인공지능 분야 초기·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AI 스타트업 스쿨 워드 서울' 첫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내달 9일까지 6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5~7시,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에서 진행된다. 대학생과 예비·초기창업자를 포함해 총 6000명이 참여한다.

전 과정은 모두 무료로 운영된다. 참

가자에게는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리는 토크 시리즈, 스피커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서울시의 행정이 디지털 대전환(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I) 시대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AI 활용력과 기술력에 도전과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자원으로 성장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교총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필요"

교권 11대 정책과제

교실 내 몰래 녹음근절 방안 등 제시
"올해 대국회·대정부 총력활동 전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신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포함한 '2024년 교권 11대 정책과제'를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교권 확립에서 시작된다"라며 "11대 교권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대국회, 대정부 총력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먼저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까다롭고 소극적인 순직 인정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악성 민원, 학생 문제행동 및 생활지도 붕괴, 교육 외적인 업무가중으로 우울증을 앓는 교원들이 늘

고 있고, 이것이 극단 선택과 과로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유족을 조력하는 시스템 구축은 물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교원 참여 보장 등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실 내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교총은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을 예외 없이 적용해 불법 녹음을 강력히 처벌하고, 녹음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 민원에 의한 무분별한 담임교체가 없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사의 교육방식,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악의적 담임교체 요구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라며 "이는 교사의 자긍심을 무너뜨리고, 갑작스런 교체로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아동복지법 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 마련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무혐의·무죄 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정보 즉시 삭제가 핵심이다.

학부모 등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히 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이 무혐의나 무죄로 결정될 만큼 남발되고 있는데도 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벌이 없어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지는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면허증 자진반납 어르신에 교통카드 지급

2만9310명 대상 10만원 혜택

서울시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시민 2만9310명을 대상으로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반납일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소지 중인 운전면허증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반납하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7일부

터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무기명 선불형 교통카드는 전국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다.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하세요"

2만명 모집... 18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2만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자다.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4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3월 6일 (수)

음력 : 1월 26일

수도권 날씨

2 ~ 10°C

운중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6:56 | 해질 / 18:31

연천 0/10, 동두천 1/11, 가평 0/9, 파주 1/10, 서울 2/10, 양평 2/10, 인천 2/9, 수원 3/10, 용인 3/10, 평택 2/10

백령도 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트럼프, '슈퍼화요일 전야' 노스다코타 경선도 승리 /사진 뉴스1
▲ 韓美, 방위비 협상 대표 임명... 美대선 염두 초기 협상

▲ 중국, 후쿠시마 오염수방류에 국제적 감시 강화 요구
▲ 일본 1월 수산물 수출액 전년비 3% ↑ ...홍콩과 진주 거러 등 증가



▲ 中전인대 개막...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으로 제시 /사진 뉴스1
▲ 日언론 "韓강제징용 해법 발표 1년...기시다, 반성·사과 표현 피해" 지적



알리
신선식품 개시
쿠팡·컬리 '초긴장'
너



Life

“6兆시장 잡아라”
K-독신
미국 진출 경쟁
L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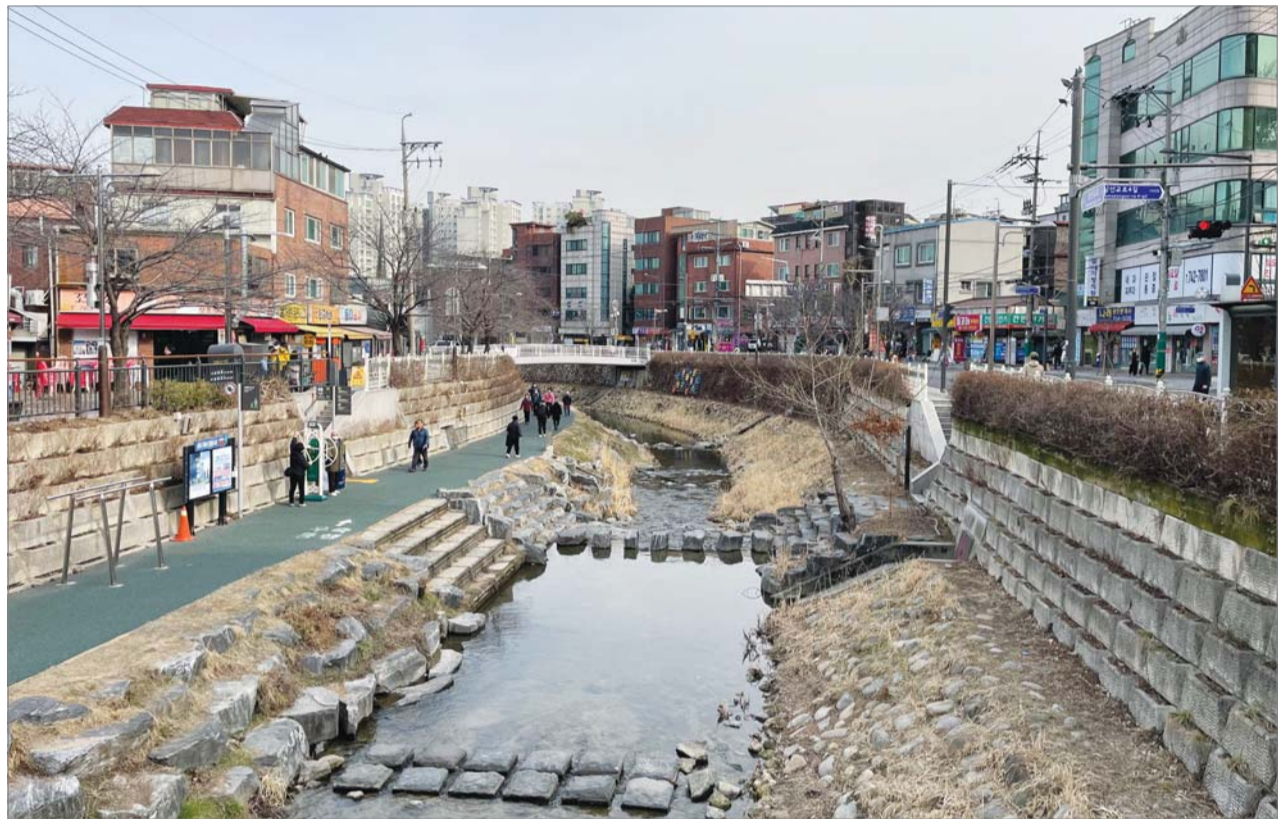
정겨운 천 따라 걸으니... 벽화 속 3·1 만세운동 역사 한눈에

되살아나는 서울

성북·동대문구 '성북천'

성북천은 서울 성북구 북악산 동쪽 기슭에서 발원해 남쪽으로 흘러 동대문구 신설동에서 청계천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의 '한국지명유래집'에 의하면, 이 물줄기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던 탓에 '성북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과거 성북천을 따라 내려가면 편히 앉아 쉴 만한 큰 바위가 있었다. '얕일 바위'라고 불렸으며, 이를 한자로 옮겨 '안암(安岩)'이라 했다. 성북천의 또 다른 이름인 '안암천'의 유래가 여기에서 비롯됐다.

서울역사편찬원이 펴낸 '서울의 하천'에 따르면, 조선시대 해화문 밖 왼쪽 일대에 성북천이 흘러 계곡과 언덕을 끼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복숭아를 재배해 도성에 팔며 생계를 이어 갔고, 매년 봄 성북천 일대는 복숭아꽃을 구경하기 위해 전국에서 몰려든 상춘객으로 북적였다. 계곡이 깊고 지형이 험해 도둑들이 많이 숨어 있는 장소로도 유명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오후 동네 주민들이 성북천 산책로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성북천 산책로 벤치 뒷편이 주민자치회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성북천 산책로 벽에는 4·19 혁명에 참여한 진영숙 열사가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성북천 산책길 담장에 새겨진 1919년 만세운동 전개 과정.

◆사람 사는 냄새나는 정겨운 마을

지난 4일 동대문구 신설동 안암2교부터 성북구 동소문동2가 분수마루광장까지 성북천 산책로 2.6km 구간을 걸었다.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2번 출구로 나와 대광초등학교 방향으로 543m(도보로 약 9분 소요)를 이동해 성북천 산책로에 도착했다.

이날 안암2교 다리 밑에선 백로 한 마리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성북천을 찾은 시민들은 하얀 몸통에 S자목, 멋들어진 장식깃을 가진 백로를 핸드폰 카메라에 담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다.

백로는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 않고 우아하게 사뿐사뿐 걷다가 먹이가 몰려 있을 것 같은 돌무더기가 나오면 나뭇가지 같은 발로 틈새를 푹푹푹 킁꿨다. 이어 송곳처럼 날카로운 부리로 하천 바닥으로 훑은 뒤 먹이 사냥이 끝나면 물밖으로 머리를 쭉 빼냈다. '저 지지분한 물에 뭐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놀랍게도 백로의 부리엔 새끼손가락만 한 물고기가 걸려 있었다. 이 하얀 새가 고개를 하늘로 치켜들자 부리에 가로로 물려 있던 물고기가 목쪽으로 쭉 들어갔다. 목안으로 고기가 빨려 들어가는 장면이 눈 앞에서 생중계되자 사람들은 '와아~!' 하며 탄성을 내뿜었다. 백로의 목 안에서 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치는 물고기의 모습은 어렸을 적 동화책 '어린왕자'에서 봤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과 꼭 닮아 있었다.

성북천 산책로는 다른 하천 둘레길과 달리 조금 특별하다. 곳곳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보문1교 다리 밑은 주민자치회의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로 꾸며졌다. 김장 나눔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김치를 담그는 새마을부녀회, 빗자루로 빗물받이를 깨끗이 청소하는 자율방재단,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담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소속 주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보문2교 인근 담벼락에는 동네 꼬마들이 직접 그린 그

림들이 다닥다닥 붙었다. 아이들은 놀이터, 빵집, 아파트, 상가와 같이 매일 일상적으로 오가는 장소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호등까지 마을 이곳저곳을 세심하게 살펴 작품에 표현해냈다.

◆3·1 만세운동부터 4·19 혁명까지...역사의 흔적 곳곳에

성북천 산책길 담장엔 1919년 성북구에서 진행된 만세운동의 전개 과정도 새겨졌다. 1919년 3월 24일 성북동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이틀 뒤 오전 3~6시 신설리(현 보문동)에 살포된 '광고'라는 제목의 격문 아래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근처 여러 동리 사람들은 진정 불쌍하고 가엾도다. 너희 동리는 국가도 모르고 병어리도 아닌 바에야 어찌 대한제국 독립 만세를 부를 줄 모르는가?"

3월 26일 밤 신설리의 안감천 일대에 군중 200여명이 만세운동을 하며 전차에 돌을 던졌다. 그다음날인 3월 27일엔 전날의 두 배 이상인 약 500명이 만세운동에 동참했다. 철길을 가로지르는 전차의 유리창에 성난 표정으로 돌을 던지며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벼락에 그려졌다.

이날 성북천 산책로엔 3·1 만세운동과 함께 4·19 혁명의 흔적도 남아 있었다. 보문동에 살며 한성여중 2학년이던 진영숙은 1960년 4·19혁명 당시 어머니께 편지 하나를 남기고 거리로 나갔다. 진영숙이 시위 버스에서 구호를 외치다 미아리 고개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면서 편지는 곧 유서가 됐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이 적혀 있었다.

"지금 저와 친구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하여 피를 흘립니다. 어머니 데모에 나간 저를 책하지 마시옵소서. (중략)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무척 비통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온 겨레의 앞날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기뻐해 주세요"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조선시대, 복숭아꽃 만발하던 마을 큰 바위 있어 '안암천'으로 불리기도

마을주민 손길 닿은 정겨운 산책로로 산책길 담장엔 3·1 만세운동 새겨져 4·19혁명 진영숙 열사 편지 벽화도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황선홍 없는 올림픽대표팀, 3월 사우디 초청대회 참가 /사진 뉴시스
▲롯데 자이언츠, 부산시 우수납세 기업 선정

▲'민헌 핵심' 김민재, UCL 라치오전 벤치 시작 가능성
▲KIA, 스프링캠프 마치고 6일 귀국... "부상자 없어 만족"



▲LPGA 태극낭자 올해 첫 승 나올까... 7일 블루베이 개막
▲男배구 정규리그 1위 가리자...대한항공 vs 우리카드, 마지막 승부 /사진 뉴시스